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255

2014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 학위논문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지 운

dCollection @ chosun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Reading Discussion Instruction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박 지 운

Collection @ chosun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

지도교수 이 재 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박 지 운

Collection @ chosun

박지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주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기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Ⅱ. 이론적 배경 14

1. 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 14

2. 다문화교육과 독서 토론 수업 24

Ⅲ. 연구 방법 29

1. 연구 대상 29

2. 연구 절차 30

3. 독서 토론 수업계획 32

Ⅳ. 독서 토론 수업의 과정과 의의 분석 39

1. 독서 토론 수업의 과정 분석 39

2. 독서 토론 수업의 의의 분석 54

가. 다문화 학습 태도의 긍정적 강화 54

dCollection @ chosun

나.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 59
다.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경험 ····· 63

Ⅴ. 결론 및 제언 ····· 92

참고문헌 ····· 98

부록 ·····102
1. 다문화 교육 연구를 위한 설문지 ····· 102
2. 토론 전 활동 학습자료 ····· 104
3. 모둠별 토론 기록장 ····· 112
4. 토론 평가서 ····· 113
5. 교수 · 학습 과정안 ····· 114

d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1> 2007 개정 교육과정 반영된 다문화교육 요소 ····· 21
<표2> 독서 토론 활동 4단계 ····· 27
<표3> 연구 추진 절차 및 방법 ····· 31
<표4> 다문화 텍스트 및 선정이유 ····· 33
<표5> 수업목표 및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 36
<표6> 토론 후 활동 - 다문화정책 만들기 ····· 63
<표7>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 85
<표8>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도 ····· 89
<표9> 독서 토론 수업으로 인한 협동심 ····· 92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Reading Discussion Instruction

Park Ji-Woon
Advisor : Prof. Jae-Ki Lee Ed.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versity

The current movement of multicultural society has become accelerated due to globalization and increased immigration. It has been many years since Korea plung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Such a phenomenon is the result of an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dustrial trainees, and foreign workers. At the same time, Koreans have a tendency to delay marriage, and men's marrying older women is on the rise. In addition, the number of marriage migrants mainly from Southeast Asia and China has been constantly increasing, which is due to the imbalance of marriage partners available in rural areas. Howeve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ve struggled with cultural difference, identity confusion, and language barriers. Under the policies of the Education Ministry, most of the subjects have been dealing with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t's obvious that the subject "Korean" based on Hanguel needs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subject "Korean", multiculturalism education can be handled into various ways. These include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by using numerous texts. The reading debate class using multicultural texts has especially been a stepping-stone for students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thoughts over multiculturalism.

This thesis "studies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book reading discussion instruction", examines awareness of students about the classes and how the class

dCollection @ chosun

affected students. I have collected related materials and analyzed them after the classes with 2nd grade students of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he chapter II made a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ading book discussion classes. It also provides a thorough examination on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education of Korea. It directs how students can adop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by looking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 Moreover, it describes how this education should be oriented with referring to studies and literat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reading book discussion instruction. The chapter III covers how the book reading classes have been planned through practical multiculturalism related texts,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reading book discussion education.

The classes consisted of before debate activities, during debate activities, and after discussion activities with 5 different topics. The chapter IV analyzes the results of the organized classes, the changing concept of multiculturalism and impact of the reading book discussion instruction. I hope this thesis help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to be researched actively, developed further and well constructed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We need to make more effort to develop proper book reading discussion instruction that can be applied to each subject, in order to activate book reading activitie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 the whole subjects.

dCollection @ chosun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수많은 정보의 유입은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동 및 교류를 더욱 쉽고 잦게 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를 글로벌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화와 이주의 증가로 다문화사회로 진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도 단일 민족사회로 알려져 왔고, 대한민국이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민족국가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산업연수생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출입 증가, 경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나, 한국사회에서 결혼 기피나 만혼현상, 또는 농촌지역 결혼상대자의 수급 불균형에 따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주변국들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1] 등은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공식 통계만으로도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장단기 불법체류외국인 18만 758명을 포함하여 150만(2013년 6월 30일 기준)이 넘었다.[2]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고, 교육 또한 다문화사회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실시된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보면 2006년 9,389명이던 다문화가정 학생수가 2009년 26,015명, 2012년 46,954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그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학교 내에서 문화적 차이, 자아정체성 혼란, 언어적 한계성으로 오는 학습 부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바른 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문화교육을 최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고, 창의적 체험활동 및 여러 교과에서 다문화교육

1) 원진숙 외,「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2010, p35
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실

dCollection @ chosun

이 학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정부 복지 종합계획 - 참여복지 5개년 계획'(2004)과 '재외동포 교육 강화방안'(2005),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2006)을 근간으로 '초중등 교과서 보완 지도 자료'(2006)을 배포하였다. 이후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집'(2007) 등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 '다문화 교육'이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 포함되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단일민족, 한 핏줄, 한민족' 등의 용어 삭제와 순혈주의 단일 민족 등의 개념 삭제 등이 검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 타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문제, 다원주의와 관용의 강조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3)]

한국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주도 아래 범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말과 글을 배우는 국어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당연시되고 있다. 국어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어습득을 위한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말하기 및 읽기, 쓰기 교육이 있다. 특히 다문화텍스트를 주제로 한 독서 토론 수업은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표현할 수 있고, 다문화적 사고를 길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다문화교육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국어교과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서 토론 수업에서 다문화교육을 접목시켜 실제 적용한 연구는 미흡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과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독서 토론 수업을 적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1장에 이어 제2장에서는 다문화교육과 독서 토론교육에 대해 기술하여 현 사회에서 다문화교육과 독서 토론교육의 필요성과 그 관계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독서 토론 수업의

3) 진상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p1-2

dCollection @ chosun

모형을 구상하고 수업방안을 계획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제4장에서는 선정된 텍스트와 토론 주제를 바탕으로 모둠별로 토론을 펼친 과정 및 양상을 다루고, 제5장에서는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학생들의 사고나 생각의 변화 여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먼저 다문화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최충옥, 조인제(2010), 장인실, 유영식(2010), 민용성, 최화숙(2009), 모경환, 황혜원(2007), 이경희(2011) 등이 있다. 최충옥, 조인제(2010)는 지난 20년 동안 국내의 다문화교육 연구동향을 반성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동향을 정책연구, 학술연구, 현장연구로 구분하여 각종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문헌 분석하였다.[4] 그리고 향후 다문화교육 연구의 활성화와 '다문화교육학' 정립을 위한 연구과제로 중장기적 패널연구, 각종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연구·학술연구·현장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와 현장실천가의 상호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장인실, 유영식(2010)은 다문화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성 연구로 다문화교육 모형에 근거한 프로그램과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때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의 향상 정도를 살핌으로써 다문화 교육이 어떤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했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다문화 인식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둘째, 교과서에서 추출한 다문화 교육보다 모형에 근거하여 구안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향상에 있어서 더 효과가

4) 첫째, 정책연구는 실태조사나 당연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장기 발전과 정책연구가 미흡하고, 국제결혼 자녀의 동화와 사회적응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학술연구는 다양하고 확대되어 있으나,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 혼란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교육현장을 위한 연구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있었다. 셋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속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교육은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민용성, 최화숙(2009)은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우선적으로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고, 현재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변화들을 탐색하였다. 또한 7차와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상에 제시된 다문화 내용 요소를 분석한 후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을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으로 하나의 체제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교육과정 각 구성 요소별로 지향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즉, 정체성과 다양성 있는 목표 구성, 소수 인종과 문화 집단의 총체적 관점이 포함된 내용 선정, 교과 및 교과 외 활동을 통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기회를 통합적인 방법으로 제공, 목표, 내용 및 방법 등과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하나의 체제로 연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지원도 개발 방향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은 일부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뿐만 아니라 내용, 방법, 평가 그리고 기타 인적·물적 지원까지도 다문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와 방향으로 구성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필요에 의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틀을 갖춘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모경환, 황혜원(2007)은 학교 교육에서 다문화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과인 국어,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사들의 다문화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성향을 나

dCollection @ chosun

타내고 있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가르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교사의 업무가 또한 증가하게 된다고 판단한다. 둘째, 다문화적 이해도에 대한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다만 상당수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자녀가 높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항목에 동의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점이다. 셋째, 다문화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 응답 교사들은 배려중심 접근법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동화주의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이러한 동화주의 관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교육을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으로 보는 관점을 비교한 이경희(2011)의 연구도 있다. 북미의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유럽의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을 비교하였는데, 많은 부분 유럽의 상호문화교육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이 연구는 북미와 유럽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배경 및 원인, 다문화 교육 정책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라 서구와 차별화된 한국적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편 국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는 원진숙(2013), 박영민(2009), 김연권, 노재윤(2010), 김혜영, 전은주(2010), 전은주(2009), 최숙기(2007), 김영은(2010), 유성미(2011) 등이 있다. 원진숙(2013)은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구성원들의 언어 의식을 다수자의 시선과 소수자의 시선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반하여 국어교육의 지향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자 그룹의 언어 의식은 종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국어교육 이념을 지양하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소수자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국어교육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일반 학생들의 이해와 관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적 인식 태도와 다문화적 문식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국어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수자 그룹의 언어 의식은 한국어는 꼭 배워야 할 말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렵게 느껴지는 언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 언어 소수자들은 주류 사회 구성원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소통의 부재와 단절은 물론 사회적 거리감과 위축감, 소외 의식과 낮은 자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언어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자아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dCollection @ chosun

배경 국어 공동체'구성원들의 언어 의식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국어교육의 지향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어교육은 사회적극 반영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국어교육의 외연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학문적 연구와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영민(2009)은 중등학교의 국어교육에서 어떤 방향에서 다문화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육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다문화 학습자들은 언어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이질적이므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국어교육의 틀을 통해서는 국어교육의 목표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틀은 다문화를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국어교육의 조건들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국어교육의 방향을 네 가지로 논의하였다. 첫째는 국어교육 및 국어 능력의 개념 변화, 둘째는 국어 수업 문화의 수정, 셋째는 학습 언어에 대한 교육과 지도, 넷째는 국어교과서 구성의 변화 모색이다. 이와 아울러 다문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강조하였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은 학습동기의 감소인데, 환경이 다른 다문화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김연권, 노재윤(2010)은 중학교 국어교과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학교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적 내용을 추출 분석하였다. 둘째, 국어교과서의 제재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교육을 하기에 적절한 제재를 추출하였고, 이를 내용에 따라 사회정의, 다양성·다원성, 정체성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적용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기존의 교과 내용에 다문화적인 텍스트를 첨가하여 설계하였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용성이 입증되었다.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사회를 이해하는 국어수업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교과의 교사들에게도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혜영, 전은주(2010)는 중등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과 수업을 관찰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국어 능력과 학업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과

dCollection @ chosun

교수-학습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교사가 언어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인식 측면의 다문화적 국어 수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학습자 대상의 국어과 수업에서는 문화적 어휘 학습에 용이한 텍스트를 선택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텍스트에 실리는 다문화인의 모습도 다양하게 제시하여 학습자 사고의 균형을 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여 국어 능력 전반의 발달을 신장시켜야 하는 학습자, 국어 능력의 일부분에 대한 보충학습이 제공되어야 하는 학습자 등과 같이 다문화 학생 상황에 맞는 언어 학습 방향을 찾아 실제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교사는 적절한 수업 지시어 선택, 다른 개념이나 항목으로의 대치, 개념 설명 과정에서의 풀어 말하기 등 교수 상황에서의 언어와 행동을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학습자와 일반 가정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련된 연구로 전은주(2009)의 연구가 있다. 두 집단의 비교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 다문화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며, 일반 학습자보다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작품 이해 등의 능력에 관해서는 평균적으로 조금 낮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두 집단 모두 국어 수업 중에서 '읽기'를 가장 흥미 있고 쉬운 영역으로, '쓰기'를 가장 흥미가 없는 영역으로, '문법'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쓰기'가 가장 쉽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문화 학습자가 일반 학습자에 비하여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다문화 학습자보다 일반 학습자가 모둠 활동을 할 때와 발표, 토론 등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반응에 더 많이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4) 다문화 학습자는 '쓰기', '문법' 영역의 내용과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하여 어렵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일반 학습자와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5) 다문화 학습자는 국어 수업 시간 이외 자신들의 국어사용능력을 신장 할 수 있는 추가 수업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일반 학습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숙기(2007)는 실제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반영한 국어교과서 단원 구성 방법 및

dCollection @ chosun

원리, 그리고 모형을 제시했다. 단원 구성의 방법의 단계는 첫째, 교육과정 설계 둘째, 단원 구성의 원리 설정 셋째, 단원 모형 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과정 설계 부분에서 특히 중핵형 교육과정은 다문화 교육에 있어 각 교과를 유의미하게 통합시켜 주고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과서 개발에 있어 좀 더 깊이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어교과서의 제재에서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제재를 선정하는 문제가 있다. 국문학과 서구문학이 대부분이 문학제재 가운데 아시아 문학 및 이주자 문학 등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둘째, 주류 학습자와 비주류 학습자 간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비주류 학습자의 학교급 별 언어 수준을 반영하여 국어교과서에 대한 보충 학습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교과서의 근간이 되는 국어과교육과정 상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교육과정 상의 논의가 요구된다.

김영은(2010)은 문학제재를 활용하여 다문화교육을 연구하였다. 문학교육의 경우 문학 자체에 내재된 효용으로 인해 타문화에 대해 가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의 대상도 더욱 폭넓게 잡을 수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다문화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비평 활동을 후행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을 통한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다문화제재 발굴 및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교사의 전문성 신장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개념이 현(現)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인종의 다양성에 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모든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다룰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5)]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국어교육연구로 유성미(2011)의 연구가 있다. 다문화자녀 교재 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정책적 고갈을 해결하고 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뿐 아니라 국어능력으로 이어지는 학문 연구 및 사회생

5) 김영은은 문학 제제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이 속한 곳의 문학 외에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다.
둘째, 작품 속에 나타나는 현실과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과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제재를 통해 타문화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활의 적응을 위한 국어 교육 연구를 설계하고자 했다. 첫 번째 단계로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거주현황과 외국인근로자 자녀 거주현황,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현황제시를 하였다. 또 다문화가정 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부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근무하는 15명의 교사 및 실무자, 언어치료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살펴보았고 어떤 학습과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았고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로인해 교육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제대로 된 교육적 지원이나 교구, 혹은 교재에 있어서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국어교육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지원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2010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인천, 충북교육청의 2010년 계획안에 제시된 지원정책을 확인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통적으로는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 부진을 클리닉 하는 것과 교원 연수를 통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차이점으로는 각기 교육청마다 특성화된 계획안을 세워 지역에 특성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어 교육의 정체성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고, 계획되어 배출된 교사가 없었으며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중앙 다문화교육센터와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에 발간한 교재인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용 국어교재분석의 『학교가 좋아요』와 『한글학교 한국어』의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보았다. 교재들은 모두 삽화를 통해 쉽게 국어를 이해하도록 구성하였지만 부교재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풀이 등 확인학습이 힘들어 부교재 발급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았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고 2011년 이후에는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문화가정을 위한 국어교육에 적극적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국어 교육의 세분화된 방향이나 수준별 학습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수업에 관한 연구로는 신희선(2012), 배성희(2012), 서미

dCollection @ chosun

경, 송윤숙, 조현행(2011), 이형래(2009), 김지은(2013) 등이 있다. 신희선(2012)은 인문학 고전을 읽고 토론하고 그에 관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교양 교육과정을 고찰하면서 독서토론의 교육적 함의를 연구하였다. 독서토론의 방법은 개인적 차원의 독서를 넘어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공통 관심과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함으로써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읽게 되는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는 활동이다. 독서토론을 하는 동안 교수자는 논제를 제시하거나 이슈를 던져주기 보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발제를 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토론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능동적인 분위기가 형성할 수 있다. 본 연구로 제시한 수업 사례의 경우 독서토론을 마무리한 후 다루었던 고전 텍스트 가운데 한 권 혹은 두 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읽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가 아우러지면서 종합적인 의사소통교육을 시도될 수 있다. 독서토론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토론하며 그들의 생각을 증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넘어서 세상에 대한 그들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표현하는 공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배성희(2012)는 독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학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학교에서 학습자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독서토론 모형을 구안하였다. 학습자의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토론 모형을 구안하기 위해 우선 독서능력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본고에서 추출한 독서능력의 요소는 이해력, 비판력, 감상력이며, '이해력'은 독서 자료의 내용을 바르게 분석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비판력'은 이해한 독서 자료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며 그 속에 숨어 있는 뜻까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감상력'은 문장 또는 자료가 자극하는 정서적인 감동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각각 정의하였다. 본고에서 구안한 모형은 '단계형 독서토론 모형'이다. 1단계는 '대집단 토론'으로 독서토론 수업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학습자들을 위해 수업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토론 학습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몸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소집단으로 나누지

dCollection @ chosun

않고, 학급 전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소집단 자율 토론'으로 본격적인 소집단 간 대결 토론이 이루어지게 전에 개별 소집단들이 소규모로 자율적인 토론 활동을 해보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3단계는 '소집단 대 소집단 토론'으로 한 학급을 토론 집단과 평가 집단으로 나눈 후, 하나의 주제를 정해 본격적으로 대결해 보는 토론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 독서토론 모형의 의의는 첫째, 상위인지와 사회구성주의 이론을 중시하여 구안되었다는 점, 둘째, 국어 과목이지만 '단계형'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셋째, 결과분석에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듯 실제적이고 점진적인 수업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미경, 송윤숙, 조현행(2011)은 독서토론의 실제 수업 모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글쓰기 능력을 향상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독서토론 수업은 토론 전 과정, 토론 중 과정, 토론 후 과정으로 진행 된다. 토론 전 과정은 토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책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 논제 설정 활동을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창의적 사고의 특징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이 개입될 수 있다. 토론 중은 본격적인 토론을 하는 과정으로 정해진 토론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나누어 자신의 주장에 따라 뒷받침 근거를 들어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이때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발휘해 논증할 수 있다. 토론 후에는 토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글쓰기를 한다. 학생들은 글을 쓰며, 토론을 통해 알았던 새로운 사실과 자신의 신념을 내면화 시킬 수 있다. 또한, 토론 논제에 대해 글을 쓰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이 했던 주장과 근거, 설명들이 설득력이 있는지 인식하게 된다. 글을 쓰는 작업에 있어서 교사는 글쓰기 형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한 내용을 쓰도록 유도한다. 즉 토론한 내용 중 인상적인부분이나 특별히 더 써보고 싶은 부분 중 어느 부분이라도 글쓰기의 제목과 내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한 생각의 결과물을 글로 표현해 내는 과정에서 창의적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초등교육의 독서토론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형래(2009)는 교실에서 읽기 수업의 일환으로 독서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교실 독서토론 모형을

dCollection @ chosun

구안하였다. 학교에서는 대회 중심의 독서토론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찬반 논의형 독서토론은 의미 있는 독서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교실에서도 실질적인 독서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교실 수업 친화적인 독서토론 모형을 구안하였다. 교실 독서토론 모형은 읽기 수업 중심의 독서토론으로 모둠이 독서토론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학생들의 의견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교실 독서토론은 읽기 수업의 학습목표를 활용하며, 교사가 사회자의 역할을 하며 독서토론을 안내하며, 교과서의 글을 독서토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교실 독서토론에서는 읽기 수업과 같이 교과서의 글이 독서토론의 텍스트가 된다. 교실 독서토론 모형은 '안내하기', '읽기', '내용 확인하기', '모둠 협의하기', '모둠 토론하기', '평가 및 정리하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논제에 따른 의견 제시하기', '논제에 따른 모둠 의견에 대한 협의하기', '논제에 따른 의견에 대한 반론하기', '각 모둠의 반론에 대한 협의하기', '최종 의견 제시'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교실 독서토론 모형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독서토론 참여를 유도하고 교실 읽기 수업을 정상화 시키는 구실을 한다.

김지은(2013)은 초등학생의 소집단 독서 토론 대화에서 나타나는 독해 양상이 독서 능력, 텍스트 유형, 집단 구성 방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독해가 사회적 의미 구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독해의 개념과 변인을 설명하고, 초등학생의 독해를 규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징과 읽기 수준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학생들의 읽기 초점을 살펴보고,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읽기 교수-학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독서 토론의 유형과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독서 토론 대화에서 학생들은 주로 세부 내용 확인 및 이해에 집중하였다. 독서 능력 집단별 독해 양상을 분석하여 보면 독서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능력 또한 우수하였으며, 텍스트 구조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서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인지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 상태였으며, 고도의 응집성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동료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합하여 성공적으로 의미를 구성하였다. 반면 독서 능력이 낮

dCollection @ chosun

은 학생들일수록 텍스트의 종합적 이해보다는 부분적 내용의 확인에 집중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글을 이해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시각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독서 능력 하위권 학생들은 글의 내용을 상세하게 회상하지 못하였으며, 비명시적 내용 추론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의미 구성에 있어서 유능한 동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비계를 설정해 줄 이가 없어서 인지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 이들의 독서 토론은 과도한 텍스트 비관련 발화가 많아서 응집성도 낮아지게 되었다. 텍스트 유형에 따른 독해 양상은 양적 분석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질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학 텍스트 독해에 있어서는 문학적 요소의 파악에 관심을 두었으며, 텍스트에 대한 긍정적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다. 텍스트의 현실성과 적절성에 초점을 맞춘 평가적 읽기 양상이 나타났으며, 글의 구조 파악에 있어서는 결말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반면 정보 텍스트의 경우 대용물을 통하여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실제 경험과 연합하고자 하였으며, 문학 텍스트보다 부정적 감정 평가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개념 이해를 위하여 도서에 배치된 시각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독서 능력 수준별로 독서 능력 상위권 학생들은 동질 집단에 편성될 경우 완전한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고수준의 독해 대화 참여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질 집단에 편성될 경우 동료 교수의 측면에서 동료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 집중하였다. 중위권 학생들은 집단 구성 방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혜자의 역할을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만 독서 능력 하위권 학생들은 동질 집단으로 편성될 경우 인지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질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Ⅱ. 이론적 배경

1. 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

가.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국제적인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사회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되었다. 한국 사회 내에서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었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함을 실감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태도 및 사고는 다문화주의와 연계된다. 다문화주의는 한 국가 안에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사회 안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장려하는 공적인 시도를 지칭한다"(마르코 마르티니엘로, 2002)[6]. 다문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사회 내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교육,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성(性)적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없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Banks의 정의에서 다문화교육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은 " 남학생과 여학생, 영재아와 장애아, 그리고 다양한 인종, 민족, 언어, 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성장한 학생들이 학교의 학업 성취면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이념이요, 교육개혁이요, 진행 중인 과업이다"(Banks & Banks, 2007)[7].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소수자만을 위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는 교육이라는 오해를

6)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 2002,『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한울
7) 뱅크스, 2007, "Approach to multicultural curriculum reform" in Banks, J.A & Banks, C.M.A.(eds), *Multicultural Education:Issues and Perspectives(six edition),* San Francisco, CA:John Wiley & Sons, Inc. pp. 247-269

dCollection @ chosun

갖기도 한다. 이에 대해 뱅크스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문화교육이 단지 특정, 인종, 민족 집단이나 소외받은 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야말로 다문화교육이 물리쳐야 할 최악의 편견이다. 이러한 편견은 다문화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나타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많은 책과 학자들이 다문화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아무리 제기해도, 그것을 소외받은 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대중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심지어 많은 교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Banks 2008/2008:12)[8].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오해 속에서도 다문화가정이 가지는 편견이나 차별,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 공교육 차원의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이 다루어져서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뱅크스는 다문화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9]

①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뱅크스는 상호 간의 이해가 밑바탕이 되어야 개인에 대한 존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②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에서 주류 집단(미국, 서구의 경우 주로 백인)의 역사와 문화 만에 집중되어 왔을 뿐 이런 주류 학생들에게 문화적·민족적·언어적 대안을 가르친 적은 거의 없었다.

③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데 있다. 주류집단은 타문화에서 문화의 독특함과 풍부함을 알고, 소외집단은 학습을 통해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소수민족집단이 그들의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미국에서는 일부 소수민족의 경우 자신의 민족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백인 주류 사회에 동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백인 주류 문화와

8)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2010, p76
9) 모경환 역, 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pp2~8

dCollection @ chosun

가까운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인종적 한족 한계로 인하여 백인 주류 문화에 편입됨을 거부당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민족 문화와 백인 주류 문화 모두에 소외를 당하게 된다.

⑤ 학생들이 전 지구적이고 평평한 테크놀로지 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지국적이란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의 학생과 개발도상국에 일자리를 아웃 소싱함으로써 평평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⑥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문화 공동체, 국가적 시민 공동체, 지역 문화, 그리고 전지국적 공동체에서 제 구실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다양한 인종, 문화, 언어, 종교 집단의 학생들이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과거 국가의 문화에 동화하기를 요구하던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계 공동체 시민으로써의 필요한 지식 등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성격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논리는 이해와 통합이다. 통합 중심의 다문화교육 논리는 동화주의로 칭할 수 있다. 동화주의는 용광로 이론(melting pot theory)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우월한 문화 속으로 소수문화가 변환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동화주의는 인종, 종족, 집단 간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이론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소수종족, 문화, 성, 종교, 계층 집단 출신 구성원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주류사회로의 진입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언제나 사회적 긴장과 갈등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이해 중심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로 표상된다. 다문화주의는 흔히 모자이크, 피자, 샐러드 볼로 통칭된다. 이것은 국가사회의 정치적 통일성과 단일성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 집단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가진다. 다문화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사회에서는 모두 소수종족집단들이 다수 주류집단과 동등하고도 실질적인 평등을 누리며 살아간다. 따라서 동화주의에 잠재된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과 개인의 희생을 회피할 수 있으며, 민주적 합의 질서체계를 생성시킬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적인 다문화국가들은 다문화주의를

dCollection @ chosun

기본 노선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동화주의 노선을 겨냥하여 소위 '다수로부터의 하나'라는 민주주의 모토에 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0)]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문화교육은 이해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지향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위치를 확인하고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문화적 편견 해소, 새로운 문화 창조를 학습하여, 뱅크스가 세운 첫 번째 목적처럼 '개인들로 하여금 다른 문화의 관점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또한 뱅크스의 세 번째 목적과 같이 다문화 교육의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는 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소수 비주류 구성원을 위한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이다. 다문화 능력 개발이 대다수 주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차원이라면, 소수 비주류 학생들을 위한 평등한 교육 시회의 제공은 교육기회의 보상적 배분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문화가정 자녀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그들을 위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실현할 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소외집단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정책시도는 이들의 원만한 사회 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논의와 이들을 위한 정책 지원에서 역차별을 경험하는 주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주류집단을 위한 시혜적 차원의 다문화교육의 연구가 아닌 주류집단을 위한 다문화 이해와 자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나.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의 현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각 학교급별로 다문화교육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다문화교육 대상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교육 정책의 지향점이 되

10) 김용신,「다문화교육론서설」, 한국학술정보(주), 2009, pp134-135

dCollection @ chosun

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장·단기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 불법체류자의 자녀가지도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학생들과 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각기 문화적 배경과 교육적 배경,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아동의 한국 사회 적응 정도와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교육의 성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들을 담당한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그 주변의 학생, 가족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아울러 유·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각급 학교급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각 학교급 별로 창의적이고 특생 있는 다문화 교육 구안·적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11)]

여기서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및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핵심적 주체로서 일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고, 일반 학생과 교사 등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이 계획은 크게 (1)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2)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3)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교육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교재(중급 한국어교재 외 7건)의 연구・개발에 주력하면서, 예비 교사들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교육대학에 '다문화교육 강좌'개설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차원의 다양한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위해 42개의 다문화교육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교대생 2500명을 모집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1:1 멘토링을 하도록 하였다. 또 방학 중에는 교과 학습부터 특기적성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력의 향상을 꾀하는 집중캠프를 꾸리기도 하였다. 또 학부모 차원에서는 가족 단위로 한글을 학습할 수 있

11) 박은종 외,「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2011, p57

dCollection @ chosun

게 하고 정보화 교육을 지원했으며 일반 가정과 일대일로 결연을 맺도록 하여 정보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교사들에게는 교장(감)·교사 연수(1천명 대상, 30시간 이상)를 받도록 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나 학교차원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것을 추진하였다. 또 73개교의 다문화 우수학교를 지원할 것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과 리더십 프로그램 등의 인재육성정책을 계획하였다. 한편, 이주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이중에서 교육을 위하나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주여성 자활 공간터'를 설치하여 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국제결혼 전후의 부부, 또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들에게도 '국제결혼 관련 규범인지,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등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국가정책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2]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측면을 살펴보면 글로벌화 및 세계화의 흐름 및 전 세계적인 정서를 인지하고 그에 맞추어 정책을 펼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특히 현 다문화가정의 자녀뿐 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르칠 예비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차원의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는 현직교사들과 교장 교감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이 급선무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점임은 분명하다.

두 번째 다문화교육의 현실 파악을 위해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어떠한 교육 목표 아래 어떠한 내용을 어느 수준과 범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교육적 의도가 담긴 교육 설계도이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해방 직후 교수요목기 이래 2009에 고시된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총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다. 다문화교육의 요소는 2007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야 반영되기 시작했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수아 교육 지침',

12) 김영은, 문학 제재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pp15-16

dCollection @ chosun

‘귀국자 자녀 교육 지침’에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침’을 추가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 2007 개정 교육과정 반영된 다문화교육 요소

과목	학년	교육과정
국어 (화법)	선택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그 현상의 배경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들이 조화를 이루어가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른들의 말투는 물론이고, 새터민의 말투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말투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언어 양상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어 (문학)	선택	(4)문학과 상 (나) 문학과 공동체 ② 문학을 통하여 양성 평등, 사회적 소수자, 생태, 미래 사회 등 공동체의 관심사에 대하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도덕	9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며, 문화 교류와 체험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타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분석하고, 타문화와 교류·체험할 때에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하여 토론한다.
사회 (지리)	7	(4)지역마다 다른 문화 세계 각 지역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고, 지역에 따라 문화경관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바탕으로 상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학습자가 흥미 있어 하는 스포츠, 영화, 예술, 지역 축제를 소재로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한다.
역사	8	(8)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다양한 문화권의 형성 과정과 그 특징을 다룬다. 서아시아, 유럽, 인도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로 나누어 각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각 지역의 정치경제적 특징과 문화요소를 파악하영 문화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다른 문화에 관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한다.
실과	교수·학습	마.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진로교육,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 다문화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dCollection @ chosun

	방법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 범교과 영역에 대해 관련 영역과 내용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체육	9	(나)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한다.
미술	교수·학습 방법	(다) 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영어	교수·학습 방법	(아)영어권 및 비영어권의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여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화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기르도록 한다.
특별 활동 (행사)	목표	⑤ 지역 간, 국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교육적 요소가 다수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고려, 혹은 배려가 부족했음은 사실인 듯하다. 또 2007 개정 교육과정 내용도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아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듯하여 아쉬운 면이 있다.[13]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 이를 배려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다. 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

앞서 살펴 본 교육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범교과에서 다문화교육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특정교과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닌 범교과적으로 다양한 교과에서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국어 교과는 어떠한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국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을 논하기 위해 먼저 국어교육이 과연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 이후의 문제들, 국어교

13) 김영은, 앞의 책, pp20-24

dCollection @ chosun

육에서 담당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의 영역이나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위 물음에 대한 고찰은 국어교육이 목표하고자 하는 바와 이어진다. 다음 국어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자.

> **'국어' 교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의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게 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 또 국어교과에서 학습자는 국어 활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담화 또는 글의 내용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국어 현상을 탐구하여 국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어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생산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심미적 정서를 함양한다. 이러한 '국어' 교과의 학습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 의식을 가지는 주체적 국어 생활을 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능력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국어의 가치를 깨닫고 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키도록 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태도를 기른다.[14]**

위의 국어교육의 목표를 보면 '(1) 글의 정확하고 비판적인 이해 및 표현, (2) 국어의식 높이기, (3) 문학을 통한 삶의 총체적인 이해' 라는 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국어 생활과 창의적인 사고능력, 올바른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어교육은 국어교과서에서 활용되는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기본적인 언어(한국어)를 배우며, 문학작품 및 비판적인 글을 통해 내가 아닌 타인, 세계와의 소통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국어교육의 이와 같은 목표는 다문화교육과 잘 맞아 떨어진다. 박영민(2006)[15]은 다문화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로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다른 문화권에 대한

14) NCI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자료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 국어과 교육과정 p4)
15) 김영은, 앞의 책, pp30-31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이해 및 인식 부족, 언어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 즉 다문화교육은 '언어, 문화, 가치관, 사고(思考)'를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어교육은 위 목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통 교과이자 사고 교과이고 가치관 교과라는 측면에서 교과 자체가 다문화교육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은 다문화 읽기 자료를 활용한 다문화 문식성 교육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문식성(文識性, literacy)은 개별적 의미구성 활동, 언어 사용양상을 뜻하는 개념이었으나 문식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 언어가 개별적인 맥락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도 종속되어 있다고 볼 때, 문식성을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그 개념을 확장시키면 '읽기'는 정보의 이해, 수용 및 의미의 구성 활동으로, '쓰기'는 지식과 정보의 산출 및 표현활동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박인기(2002)는 문식성을 '다양한 매체 혹은 상정 체계와 관련된 의미의 이해 및 표현 능력'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문식성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보, 기술, 과학 등과 같은 말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다문화 문식성'[16]같은 개념 역시 최근 다문화 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등장하였다.

다문화 문식성은 타인과 그를 둘러싼 사회의 정체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타문화와 소통하며,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어교육은 전통적으로 언어를 기반으로 한 '표현'과 '이해'를 다루고 있고, 가치관과 사고에 대한 것 또한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다문화 문식성을 다루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17] 국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문식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이 다문화 문식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의 양상은 Garcia(2003)[18]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다양한 문화 집단을 다룬 텍스트를 교실 수업에서 소개하는 것이 다문화 문식성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이 지식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문식성 교육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 입장

16) 최숙기(2007, 재인용), "다문화 문식성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언어를 학습하고 학문을 배우러 오는 모든 학생들의 문화적 경험, 역사 그리고 언어를 연결 짓는 과정이다. 다문화 문식성은 침묵하는 목소리들을 이끌어내고,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며 학생들이 민주사회, 다문화적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17) 김영은, 앞의 책, pp30-31
18) 박윤경, 지식 구성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독서연구, 18, No.-(2007), p106에서 재인용

dCollection @ chosun

에서는 학생들이 문화적, 사회적 경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세 번째는 다문화 문식성을 비판적 문식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비판적 문식성은 타인의 경험을 인식화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는 행동력과 관련된 것이다. 첫 번째 접근처럼 다문화 문식성을 텍스트의 내용에 한정하여 사고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다문화 문식성의 목표를 읽기와 쓰기 교육에만 한정시켜 이해하는 것도 다문화 문식성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놓치기 쉽다. 다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다문화 문식성 교육은 학생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과 가치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돕는데 있다. 즉 국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2. 다문화교육과 독서 토론 수업

가. 다문화 교육과 독서 토론

국어교육이 다문화교육에 적절하다고 볼 때, 그 다음 단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문화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지식의 요구충족보다는 사회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에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 Banks(2001)는 다문화교육을 인종뿐 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동등하게 가치로운 것으로 인식하며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교육은 사회로부터 얻은 편견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그로부터 오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은 독서 토론 교육이 가지는 전인적인 교육 관점과 함께 하는데, 그렇다면 독서 토론 교육의 관점은 어떠한 것인가. 이를 위해 독서 토론 교육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우리말에서 토론(討論)이란 '말로 상대방을 치다(討)'는 뜻과 '상대방과 조리를 내세워 논의하다(論)'는 뜻이 합쳐진 것이다. 즉 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모여 조리를 내세워 논의하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토론은 꽤 넓은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 토론이란 말을 아주 느슨하게 적용할 때에는 어떤 문제를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대화방식을 말한다. 이런 대화는 엄밀히 말하면 토의(討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는 어떤 문제나 정책, 사안 등을 놓고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치열하게 벌이는 언쟁을 말하기도 한다. 이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논쟁(論爭)에 해당한다. 토론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토의와 유사하다. 다른 한편 토론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내세우는 대립적 태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논쟁과 비슷하다.[19]

토론 활동의 하나인 독서 토론은 독서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토론자들이 책을 읽고,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독서 토론은 독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에 따라 책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므로 일반 토론과 달리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대립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심지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교류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과정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독서 토론은 토론이 아니라 토의나 대담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토론의 형식을 취하려면 선정한 책을 읽어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점을 찾아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책 안에서 그 쟁점을 지지해주는 근거를 면밀하게 찾아내고, 자신의 논점을 만들고, 상대방을 반박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독서 토론을 토론 수업의 하나로 확립하려면 개인적 차원의 독서 활동을 넘어서 집단적 차원의 토론활동으로 재구성해야한다.[20] 독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총체적 언어를 습득한다.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하고, 읽고 난 후에는 말을 해야 하며, 말을 하기 위해서는

---

19) 이정옥,「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2008, pp22-24
토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토의나 논쟁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
① 하나의 논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다. ② 찬성과 반대의 대립을 이룬다. ③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설득한다. ④ 일정한 규칙이 있다.
20) 이정옥, 앞의 책, pp165-166

dCollection @ chosun

메모를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한다. 즉 독서 토론을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을 종합적으로 습득한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사고력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다.[2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서 토론 교육은 다문화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토론 교육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토론을 하게 되면 자료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토론에 임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상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22] 이와 같이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정이나 다문화 관련 텍스트의 독서 후 내용 분석하기 활동은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다양한 다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그와 맞물리는 다양한 토론 주제로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나의 주장이나 주관적인 사고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는 과정, 타인의 주장과 논거를 들으면서 경청하는 태도의 형성, 타인의 주장이 자신의 다문화에 대한 관점에 미치는 영향 등은 다문화교육을 이해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상호이해교육 및 올바른 문화 이해교육과 집단문화의 어울림 인식을 얻는데 필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토론 전 활동인 다문화 관련 텍스트 읽기의 독서와 의사소통의 하나 형태인 토론 활동, 그리고 토론 후에 올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특히 자신의 생각을 논증하는 글쓰기과정이 단계성을 지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현될 때, 독서 토론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23]

나. 독서 토론 교육의 방법[24]

앞서 언급했듯이 독서 토론 교육은 토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

---

21) 한광영, 독서 토론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pp20-21
22) 김주환, 앞의 책, p33
23) 김민정,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 토론논술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논문, 2003, p84
24) 김주환,「교실토론의 방법」, 도서출판 우리학교, 2009, p181-187

dCollection @ chosun

되어 나타났을 때 독서 토론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독서 토론 교육의 방법적인 면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을 행할 수 있다. 독서 토론은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책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고 독서 토론을 진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서 토론은 책을 읽고 감상을 정리하는 등의 혼자 하는 활동과, 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등의 함께하는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독서 토론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표2> 독서 토론 활동 4단계

① 책 선정하여 읽기 (혼자 하는 활동)
② 개인적 감상 발표하기 (함께하는 활동)
③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 (함께하는 활동)
④ 비평글 쓰기 (혼자 하는 활동)

첫째, 책을 선정하여 읽는 단계이다. 책을 선정하여 읽는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가이다.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추천 도서 목록을 참고한다거나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독서 토론을 목적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과연 그 책이 토론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이다.

둘째, 개인적 감상 발표하기이다. 감상과 비평은 다르다. 감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비평은 대상의 옳고 그름을 가려 가치를 논하는 것이다. 책을 읽고 이야기할 때에는 감상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 책을 읽은 후의 느낌이나 생각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은 꼭 필요한데, 이 단계에서는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독자의 느낌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이다. 독자의 해석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그 다음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감상 발표 단계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된다. 비록 잘못된 해석을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도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dCollection @ chosun

듣게 되면 오독이 바로 잡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굳이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감상 발표만으로도 학생들은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셋째,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이다. 학생들이 발표한 여러 가지 감상 의견 중에서 공통점은 간단히 짚고 넘어갈 수 있다. 그것은 모두가 대부분 공유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서로 다른 해석이 나타나는 까닭은 일차적으로 오독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오독이 왜 일어났는지 살피는 과정은 다른 친구들의 설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교사가 바로 잡아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한편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쟁점은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을 수도 있다. 서로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쟁점이라면 토론으로 넘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 작품을 보는 관점 차이 등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집중 토론이 필요하다. 쟁점이 도출되면 그 쟁점을 다시 칠판에 적어 놓고 이것을 논제로 삼아 토론을 진행할 준비를 한다. 보통 분명하게 드러나는 쟁점은 작가 해당 작품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문제의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면 작품을 한층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작가의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일, 또는 쟁점의 역사적 배경 등을 조사하는 것은 토론이 더욱 의미 있게 전개되도록 도와준다. 독서 토론과 다른 토론의 차이점은 토론의 논거를 작품 속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을 꼼꼼히 읽는 분석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비평글 쓰기이다. '쟁점 토론'이라는 집단적 사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글을 읽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쟁점을 통해서 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특정한 관점에 따라 작품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비평이다. 따라서 비평 글을 쓰게 되면 학생들은 좀 더 포과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게 되고 글을 보는 안목을 넓히게 된다. 또한 독서 토론의 성과를 다시 개인적인 활동인 글쓰기에 반영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에 관한 연구'로, 연구자가 토론 수업의 사회자로 참여하여 연구 대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토론 수업을 계획 및 진행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발견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기존의 여러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가설 검증적 양적 연구방법과는 달리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그 이면의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와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유태균, 2001)[25] 이러한 접근방식은 교과 교육 내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가장 큰 관심은 지식이나 전략, 이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주체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야기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자세히 밝히는 데 있다. 교사의 교수행위를 학생의 학습 행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동 구성이라는 협동 작업으로 접근해 간다. 교과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떤 실천 양식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교수행위에 초점을 맞춘다.[26]

이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토대로 다문화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히고 이를 토대로 토론수업을 실시하여 다문화교육을 하였다.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하였고, 실제로 다양한 다문화관련 텍스트를 제시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읽고 정리한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함께 살펴보았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면서 담임을 맡고 있는 전남 장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25) 최지영,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의 부부갈등 경험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3, p28에서 재인용
26) 한철우 외,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박이정, 2012, p71.

dCollection @ chosun

장성실업고등학교 2학년 1반 2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2013년 8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5시간에 걸쳐서 독서 토론 수업을 실시했다. 장성실업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이면서 장성군이라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학습자들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라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 전체적인 학생 수준이 일반계고등학교보다는 낮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관련 서적 외에 독서를 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미흡하다.

셋째, 지리상 농촌지역 읍 단위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도 있어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

넷째, 독서 토론을 위한 교육과정 내 수업 편성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다.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학생들을 위한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아 독서와 토론 문화 형성이 부족하다. 또한 학교에서 독서 토론을 위한 수업시수확보가 어렵다. 다행히 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독서 토론 수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반 전체의 참여를 돋우기 위해 모둠별 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사전에 텍스트를 읽고 와야 하는 경우 과제로 제시하여 텍스트를 읽혔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하여 수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기까지의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이다.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이전에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느꼈던 독서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연구를 계획하였고, 이에 글로벌 사회의 흐름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다문화교육'을 연구 주제로 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자료를 조사하면서 연구를 설계하고 계획

dCollection @ chosun

하였다. 2013년 8월 2학기가 시작되면서 연구 집단을 구성하였고,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연구 실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5차례의 수업을 하기 위한 독서 자료를 선정하였다. 2013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독서 토론 수업을 실시하였는데, 한 차례 마다 3차시를 기본으로 하여 총 15차시에 걸쳐 수업을 하였다. 총 15차시의 수업 중 토론 활동은 녹음을 하였고, 수업 중 다른 활동은 학습지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수업이 종료된 후에 교사는 수업 중 실시했던 활동과 수업 중 사고의 변화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2013년 12월 중순 무렵 5차례의 수업이 모두 끝나고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고의 변화를 위해 다시 '다문화에 대한 인식' 설문을 하였고, 이와 함께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고자 설문을 하였다. 그리고 2013년 12월부터 1월까지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조직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로부터 나온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표3>과 같다.

<표3> 연구 추진 절차 및 방법

단계	기간	주요활동	구체적 방법
계획	2013년 5월 ~ 2013년 8월	연구의 주제 선정	▪ 문헌 연구 자료 조사 ▪ 선행 연구 자료 조사 및 분석 ▪ 연구 주제 선정
		이론적 배경 정립	▪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현실 ▪ 국어교육과 다문화교육 ▪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교육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대상의 선정 ▪ 연구 실행 계획 수립 ▪ 독서 자료 선정
실행	2013년 9월 ~ 2013년 12월	연구의 실행	▪ 독서 토론 수업 실행 ▪ 면담 실시
		자료 수집	▪ 수업 관찰 및 녹음 ▪ 면담 자료 녹음 ▪ 문헌 자료 구성
정리	2013년 12월~ 2014년 2월	자료 분석	▪ 자료 정리 및 분석
		결과 처리	▪ 연구 결과 해석 및 정리

dCollection @ chosun

3. 독서 토론 수업 계획

본 연구에서는 독서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독서 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였다.

가. 독서 토론을 위한 수업 설계 원칙

성공적인 독서 토론을 위한 수업모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27]

첫째, 독서 토론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학습방법이다. 따라서 과정 중심의 접근 방법에 필요한 교수·학습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토론 전' 활동과 '토론' 활동, '토론 후' 활동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둘째, 교수·학습 모형 설계 시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이는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믿음이 깨질 때 수업은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은 스스로 수동적 형태를 띄게 된다.

셋째, 선택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선택의 기회가 많을 때 그 활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때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이재승, 1997:97) 따라서 교사에 의한 일방적, 설명식 수업이 아닌 개인별, 모둠별 수업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지도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지도 교사가 독서 토론과 비판적 사고의 개념 및 관계, 원리 등을 알고 수업을 하는 경우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의미한 시간(대화)으로 지나가 버린다.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을 하는데, 이때에는 구체적인 수업구성과 교수·학습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

27) 한광영, 앞의 책, pp28-29

dCollection @ chosun

업지도안이 요구된다. 수업지도안을 작성할 때에는 위 원칙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토론 전, 토론, 토론 후 활동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나.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 방안

첫째, 토론 주제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한다. 이 연구에서 토론 주제는 큰 범위에서 볼 때 '다문화'이다. 그러나 '다문화' 토론을 하기에는 그 범주가 넓어 학생들의 생각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지기 쉽다. 그래서 다문화관련 텍스트 주제를 차시별로 위계화하여 세부적인 주제를 제시하였고, 그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다문화 관련 텍스트와 그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4> 다문화 텍스트 및 선정이유

연번	텍스트	선정이유
1	다문화 관련 사설 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 경계해야 (한겨레, 2012.4.15) ② 다문화사회 담론의 '함정' (김영명칼럼, 2011.3.7)	'다문화'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시선을 제시하여, 사설 텍스트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다문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2	글로벌시대의 다문화 교육 (원진숙 외, (주)사회평론, 2010)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다. 이주와 글로벌화, 다문화주의, 다문화 가정 발생원인, 한국사회로 다문화사회 진입, 다문화가정의 현황, 세계 여러 나라의 다문화 교육관련 텍스트를 발췌하여 읽고 '다문화' 및 '다문화교육'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3	코끼리 (김재영, 실천문학사, 2005)	사설보다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표현한 소설을 제시하여 다문화 중 일부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이 소설은 다문화가정 아이의 시선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 및 현실을 제시한 소설로, 학생들이 가졌던

dCollection @ chosun

		‘다문화’에 대한 시선과 그들의 어려움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다.
4	하얀배(국어(상)) (윤후명, 천재교육, 2010)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다문화를 바라본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알 수 있으며 그 곳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고려인들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할 수 있다.
5	다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SBS스페셜 제작팀, 꿈결, 2012)	다문화텍스트 읽기 마지막 단계로서 다문화주의가 추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 구성원들과 공존관련 텍스트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다문화’의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토론 전 활동’으로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선정된 텍스트를 읽는 과정은 토론 전 활동 중 하나로 토론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가 긴 경우 과제로서 미리 읽게 하여 사전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텍스트가 짧은 경우 토론 전에 교실에서 함께 읽을 수 있다. 텍스트를 읽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텍스트를 미리 읽고 텍스트 내용 관련 질문을 제시하여 내용을 다잡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확실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필요한 경우 텍스트 관련 영상자료나 보충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토론 전에 토론 주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정리하게끔 하였다.

셋째, 논점을 제시한다. 논점 제시는 학생들이 선정된 작품을 읽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거리를 찾거나 교사가 학생들이 미리 읽어온 내용을 바탕으로 논점을 찾아 제시하는 과정이다. 텍스트가 쉽고 무난한 경우 논점을 학생들 스스로 찾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반대로 텍스트가 어려운 경우 미리 논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어오게 하는 방법이 좋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며, 이 학습자들의 학습수준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비

dCollection @ chosun

해 비교적 낮은 점을 고려하여 교사가 논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모둠별 토론을 한다. 연구를 위해 실시한 학급의 인원은 26명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토론을 하기 전에 반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4~5명으로 구성된 모둠을 구성하여 토론을 한다. 모둠은 학습자의 인지능력, 학습자의 토론경험, 발표능력 등 특성을 반영하여 미리 정해둔다.[28] 모둠 토론은 공동 토론을 하기 전에 반전체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하는 시간이다. 특히 학생들 앞에서 나서서 토론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이나 공동 토론 때 의견제시가 어려운 경우 모둠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 모둠토론이 길어지면 토론이외의 행동들로 빠질 수 있으니 교사가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미리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공동 토론을 한다. 모둠토론에서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진행한다. 이 때 토론의 진행은 교사가 맡는 것이 좋다. 형식이 엄격하지 않은 토론에서는 사회자가 토론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교실 토론에서 사회자는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쟁점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며 적절한 시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사는 토론과정에서 학생들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말싸움은 토론의 흥미를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지할 필요는 없다.[29]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와 앞서 제시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진행하였다.

공동 토론은 몇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 모둠 토론을 한 뒤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 토론[30]을 진행하였다. 자유 토론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사회자이면서 중재자역할을 해야 하고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배심원 토론 방법을 이용하

---

28) 소집단토론은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청취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가진다.(전라남도 교육청, 국어과 독서 토론 수업 길라잡이, 2011, p16)

29) 김주환, 앞의 책, pp62-63

30) 자유 토론은 가장 일반적인 토론방법으로 형식과 규칙이 엄격하지 않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아 대립적인 구조가 아니며, 토론자들이 각자 내세우는 주장이나 문제 해결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토론자들은 자유롭게 각각 자신의 입장을 달리 표명할 수 있으며, 같은 입장이더라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이정옥,「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2008, pp30-32)

dCollection @ chosun

였는데, 모둠토론에서 토론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학생 몇몇을 패널로 선정하여 토론을 하게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토론의 지켜보도록 했다. 배심원들은 패널들이 하는 토론을 귀 기울여 듣고 논제에 질문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배심원들의 경청태도를 높이기 위해 배심원들이 직접 찬성과 반대결과를 판결하게 하였다.

여섯째, '토론 후 활동'으로 논제에 대해 개별적 내면화를 한다. 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둠토론과 공동토론을 통해 학생 각자가 가진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토론 전에 가졌던 논제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 스스로 느끼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에게 내면화시킬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한줄 요약하기, 비평글쓰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 계획

본 연구를 위해 다문화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독서 토론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계획은 <표5>와 같다.

<표5> 수업목표 및 차시별 수업 계획

수업목표	차시	차시별 지도내용	선정 텍스트	토론 주제	자료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1	'토론 전 활동' ① 동영상 2편을 보고 내용확인하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독일로 간 한국노동자들의 삶) ② 사설 읽고 글쓴이의 주장 찾기	다문화 관련 사설 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 경계해야 (한겨레, 2012.4.15) ② 다문화사회 담론의 '함정' (김영명[31]칼럼, 2011.3.7)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선정텍스트(2부) ·독서토론 학습장 ·주제 관련동영상
	2-3	'토론 중 활동' ① 모둠토론 ② 자유 토론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② 한 줄 요약하기			

dCollection @ chosun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	4	‘토론 전 활동’ ① 글의 내용 이해하기 ② 퍼즐 맞추기	글로벌시대의 다문화 교육 (원진숙 외, (주)사회평론, 2010)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지는 것이 좋겠는가?”	·선정텍스트 ·독서토론 학습장
	5-6	‘토론 중 활동’ ① 모둠토론 ② 자유 토론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② 정책 만들기			
다문화가정의 삶	7	‘토론 전 활동’ ① 감상표현하기 ② 글의 내용 이해하기 ③ 배경지식 쌓기	코끼리 (김재영, 실천문학사, 2005)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이 다르다. 우리의 태도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선정텍스트 ·독서토론 학습장
	8-9	‘토론 중 활동’ ① 모둠토론 ② 배심원 토론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② 소설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민족의 삶	10	‘토론 전 활동’ ① 감상 표현하기 ② 글의 내용 이해하기 ③ 소설의 흐름 파악하기 ④ 배경지식 쌓기	하얀배 (국어(상), 천재교육, 2010)	“소련이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인에게 펼친 언어교육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선정텍스트 ·독서토론 학습장
	11-12	‘토론 중 활동’ ① 모둠토론 ② 배심원 토론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② 비평글쓰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문	13	‘토론 전 활동’ ① 글의 내용 이해하기 ② 배경지식 쌓기	다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한국사	·선정텍스트 ·독서토론

dCollection @ chosun

화의 방향	14-15	‘토론 중 활동’ ① 모둠토론 ② 배심원 토론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② 모둠별로 ‘한국인의 조건’찾기	SBS스페셜 제작팀, 꿈결, 2012)	회에 동화시킬 것인가, 모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가르칠 것인가?”	학습장

31) 김영명 : 한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dCollection @ chosun

Ⅳ. 독서 토론 수업의 과정과 의의 분석

Ⅲ장에서 기술한 독서 토론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총 15차시에 걸친 5차례의 '다문화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을 실시한 과정과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1. 독서 토론 수업의 과정 분석

가. 1차 독서 토론 수업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지는 이미 오래되었지만 '다문화'에 대한 시선은 마냥 곱지만은 않다. 특히 조선족, 이주노동자들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언론에서 크게 언급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인 편견으로 좁혀버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세계화와 글로벌화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다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감과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관점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단일사회였던 한국사회의 다양성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문화에 대한 사설을 학생들이 읽고 다문화인, 그중에서도 위 사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에 대해 토론하였다. 독서 토론 수업이 처음인 학생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사실적으로 나타난 두 편의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게 하여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자극시킬 수 있었다.

1) 토론 전 활동

① 동영상을 통한 다문화 시선 느끼기

첫 번째 '토론 전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입

dCollection @ chosun

장을 제시하였다. 동영상 시청은 독서 토론을 하기 전 학습자들의 시선을 깨우는데 보충재 역할을 하였다. 첫 번째 동영상은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내용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들의 부당한 대우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위치를 느끼게 해주었다. 두 번째 동영상은 1960년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자 독일로 건너간 한국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독일로 간 한국 노동자들이 받은 설움과 부당한 대우 등을 보면서 학생들은 그들과 현 우리 사회 속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대우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다만 독일의 한국노동자와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비교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이주노동자로 한정한 점은 다소 아쉬웠다. 동영상을 꼼꼼히 시청하기 위해 동영상의 주요 내용을 학습지에 질문으로 담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동영상을 더욱 진지하게 시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② 다문화 관련 사설 읽기

두 번째 '토론 전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버리고 수용하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가속화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이 활동은 이러한 텍스트를 읽고 독서 토론을 하기위해 학생들이 사설을 읽고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찾게 하였고, 이를 발표하여 자유롭게 토의하였다.

2) 토론 중 활동

①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

1차시에 다문화 관련 사설을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한다. 토론 주제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사가 논점을 찾아 제시하였다. 토론활동을 하기 전에 모둠별로 사회자와 기록자를 정해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모둠 내 사회자는 토론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모둠원이 모두 토론에 참여하게 토론을 진행하였다. 기록자는 토론 내용을 기록하였다. 토론을 위해 교사

dCollection @ chosun

가 미리 정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토론하기에 앞서 토론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주제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공동 토론(자유 토론)

모둠별로 토론활동을 통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하였다. 공동 토론은 자유 토론을 하였는데,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구분하여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사설에서 읽은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바탕으로, 현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토론 후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록하여 다음 토론 할 때에 활용하였다.

- 토론 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는가?
- 토론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로 활동했던 삶을 알고 있었는가?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주장을 펼칠 때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였는가?
-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② 토론 후 활동 – 한 줄 요약하기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각자가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을 한 줄로 요약하게 한다. 한 줄 요약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동영상, 사설, 토론활동에서 다루었던 다문화인,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내면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나. 2차 독서 토론 수업

1차 독서 토론 수업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문화에 대한 시선과 학습자 본인이 가진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느꼈다면, 2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도록 했다.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32]」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활용하였다. 학습자들이 읽은 개념으로는 '이주(강제적 이주, 자발적 이주)',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정 발생 원인', '한국사회에 다문화주의의 진입 이유', '한국의 외국인주민 유형', '국내 거주 외국인 출신국 현황', '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 '캐나다의 다문화교육 정책', '호주의 다문화교육 정책' 등이다. 2차시의 텍스트는 소설이나 사설과는 달리 개념을 설명하는 텍스트로 학습자들이 다소 어려워하거나 지루해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들의 잘못된 개념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다문화 및 다문화주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국의 다문화교육 사례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알 수 있었다.

1) 토론 전 활동

① 글의 내용 이해하기

2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텍스트 읽기는 다른 텍스트보다 좀 더 꼼꼼히 읽어야 한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토론을 해야 하므로 꼼꼼히 읽기는 어느 때 보다 필요했다. 글을 꼼꼼히 읽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질문하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텍스트를 꼼꼼히 읽히기 위해 질문하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학습자들이 꼼꼼히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선정된 텍스트는 개념에 대한 정의뿐 만 아니라 그 바탕 이론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이 읽어야 할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한 뒤,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학

32) 원진숙 외,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2010, pp16-84

dCollection @ chosun

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다.

② 퍼즐 맞추기

텍스트 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학습자들이 활동을 하게 하여 수업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퍼즐을 활용하였다. 퍼즐은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학습자들이 텍스트 읽고 질문에 답하는 활동을 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퍼즐을 통해 풀게 하여, 반복적인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모둠별 푸는 것 보다는 2인 1조를 풀게 하여 많은 학습자들이 퍼즐 풀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2) 토론 중 활동

① 토론 활동 –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

1차시에 다문화관련 텍스트를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활동을 하였다.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은 1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주제 :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지는 것이 좋겠는가?

② 공동 토론(자유 토론)

모둠별로 토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하였다. 공동 토론은 1차 수업과 마찬가지로 자유 토론을 하였는데, 2차 수업의 토론 주제가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 방법을 토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토론하기에 적합하였다.

3) 토론 후 활동

① 토론평가하기

토론 후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록하여 다음 토론 할 때에 활용하였다.

- 다문화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는가?
- 한국사회에 어떻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는지 알고 있었는가?
- 다른 나라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알고 있었는가?

dCollection @ chosun

- 주장을 제시할 때 다른 나라의 다문화정책 사례를 비교하며 제시하였는가?
- 주장에 대해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② 다문화정책 만들기

토론활동에서 제시된 다양한 다문화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분야별 다문화정책을 만드는 활동이다. 이는 토론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 내용을 개개인에게 내면화할 수 있고, 토론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글을 쓰는 활동보다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봄으로써 앞 차시에 했던 토론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었다. 참여한 모둠은 6모둠이므로 교사가 6개의 정부부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부로 다문화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부처로 선정하였다.

다. 3차 독서 토론 수업

3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삶을 아이의 눈으로 관찰한 소설인 「코끼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소설 「코끼리」는 네팔인 아버지를 둔 이주노동자 2세인 주인공 '나'가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 특히 집, 공장, 학교, 주변 인물 등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이 어린 화자의 담담한 어조는 마치 그들의 삶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며, 또한 그의 사실적인 묘사는 한국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받는 대우, 한국인이나 미국인처럼 보이고 싶어 발생한 일화들 등을 읽으며, 그들이 처한 환경을 느끼고, 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단지 허구가 아니라 사실과 가까운 우리 주변의 현실임을 아는 계기가 되었다. 소설을 텍스트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앞서 했던 2차례 수업의 텍스트보다는 읽기가 수월하고 집중도가 높아 학습자들의 반응이 좋았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

dCollection @ chosun

여하였다.

1) 토론 전 활동

① 감상 표현하기

전 시간에 미리 소설을 제시하여 소설을 읽힌 뒤, 소설에서 느껴지는 감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소설의 내용에서 오는 느낌을 배경지식이나 교사의 설명 없이 그대로 표출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2차례의 다문화관련 독서 토론 수업의 영향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감상을 글로 적는 활동과 함께 그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그려 표현하게 하였는데, 이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감정표현에 어색한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화자인 '나'가 처한 환경이나 아버지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읽으면서 대부분 연민이나 측은한 마음을 가졌다. 2차례 수업에서 다문화인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학생들도 소설 속 화자가 처한 불평등한 처우를 보며 한국사회의 부조리함을 느꼈다. 또한 학생들은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 등을 소설을 통해 가까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② 글의 내용 이해하기

첫 번째 토론 전 활동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두 번째 토론 전 활동으로 소설을 구체적으로 읽는 활동을 하였다. 전시학습으로 소설을 미리 읽었으나, 소설에서 나타난 사건, 형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는 활동이 필요하였다. 이에 이전 수업에서 활용한 '글을 읽고 내용 채우기'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소설의 주요 내용을 질문형식으로 교사가 미리 제시하여 학생들이 놓친 부분이나 넘긴 부분을 짚어갈 수 있다.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글로 쓰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을 하기 위해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을 수 있는 학습지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은 소설을 읽으며 질문의 답을 찾아내었다. 활동 후 학생들의 답을 함께 확인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었고, 오독을 줄일 수 있었다.

③ 배경지식 쌓기

토론을 위한 기초 지식 및 자료로써, 화자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학습하게 하였

dCollection @ chosun

다. 화자의 아버지의 나라는 네팔인데 네팔이라는 나라가 다소 생소한 학생들이 더러 있었다. 네팔에 대한 자료 및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네팔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생소하거나 낯설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네팔의 산업을 소개하면서 네팔에서 한국으로 왜 돈을 벌려고 올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 활동은 사진과 네팔에 대한 정보를 통해 추후에 토론을 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토론 중 활동

①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

1차시에 읽은 소설과 토론 전 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활동을 하였다.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은 1, 2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주제 :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이 다르다. 우리의 태도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② 공동 토론(배심원 토론)

모둠별 토론활동을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하였다. 공동 토론은 배심원 토론 방식으로 하였는데, 6개 모둠에서 한 명씩 토론자로 선출하여 찬성팀 3명, 반대팀 3명을 구성하였다.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주장 및 논거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찬성팀과 반대팀이 마주보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였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토론의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였다. 배심원들에게 먼저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 반대 수를 확인하여 토론 전 후로 얼마나 자신들의 주장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게 하였고, 또한 토론이 끝나고 찬성과 반대팀의 지지수를 파악하여 승패를 판정하였다. 배심원들은 토론을 지켜보면서 토론 중간 중간에 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심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다른 시선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찬성팀, 그렇지 않으면 반대팀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3) 토론 후 활동

dCollection @ chosun

① 토론 평가하기

토론 후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록하여 다음 토론 할 때에 활용하였다.

- 토론 전에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소설 속 주인공이 받은 차별을 알고 있었는가?
- 소설 속 인물들이 백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였는가?
-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② 소설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토론이 끝난 뒤 소설의 내용 및 토론 내용을 되돌아보기 위해 소설 속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활동을 하였다. 편지는 학생들이 글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채팅에서와 비슷하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토론 후 활동으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덜 받는다. 그동안 찬성과 반대로 대립되었던 학생들도 주인공의 친구나 형, 누나가 되어 그를 위로하는 편지를 많이 썼다. 편지를 쓰기 위해 다시 책을 읽는 학생들도 있었고, 학생들이 서로 주인공의 상황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도 하였다. 편지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소설을 자신에게 내면화 할 수 있었다. 편지의 내용이 표현력이 약해 대부분 짧았지만 토론을 통해 소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표현한 학생들도 몇몇 있었다.

라. 4차 독서 토론 수업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소설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 수업을 하였다.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윤후명의 소설 <하얀배>를 읽고 독서 토론 수업을 하였는데, 이 소설은 1930년대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고려인 3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소설로, 소설을 통해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 후 삶과 그들

dCollection @ chosun

의 어려움을 느끼고, 소설의 제재를 빗대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을 수 있다. 1, 2, 3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인들의 삶이나 시선을 살펴보았다면, 이번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사람들이 받는 대우나 삶, 역사적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기를 수 있었다.

1) 토론 전 활동

① 감상 표현하기

전 시간에 미리 소설을 제시하여 소설을 읽힌 뒤, 소설에서 느껴지는 감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소설의 내용에서 오는 느낌을 배경지식이나 교사의 설명 없이 그대로 표출하도록 하였는데, 앞서 3차례의 다문화관련 독서 토론 수업의 영향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차 수업 때와는 달리 감상을 글로 적고 이모티콘이 아닌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감상을 표현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3차 수업의 소설보다는 연민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연민을 가졌고, 자신이 한국에 태어나 한국에 살고 있음에 다행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소설을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나 차별에 부끄러워하기도 하였다.

② 글의 내용 이해하기

첫 번째 토론 전 활동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이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두 번째 토론 전 활동으로 소설을 구체적으로 읽는 활동을 하였다. 전시학습으로 소설을 미리 읽었으나, 소설에서 나타난 사건, 형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는 활동이 필요하였다. 이 활동은 3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 활동으로 소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왔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들만의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 수 있었다.

③ 소설의 흐름 파악하기

4차 수업에서 사용된 소설, <하얀배>가 여행소설이므로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활용한 소설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소설의 주요 배경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인데,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한 지명이었다. 그래서 소설에 나온 도시

dCollection @ chosun

및 국가가 모두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고 화살표로 서술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게 하였고, 이동할 때 마다 서술자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표시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소설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서술자의 심리가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찾을 수 있었다.

④ 배경지식 쌓기

토론을 위한 기초 지식 및 자료로써, 소설의 제재와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학습하게 하였다. 소설의 제재 중 소설에서 중요한 '사이프러스 나무'와 '이식쿨 호수', 그리고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하얀배'와 관련된 사진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소설에서 이들이 어떤 의미인지 찾게 하였다. 독서 토론 수업이므로 소설에서 상징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으나,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제재이기에 이 제재들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학습하게 하였다. 우리 민족이 왜 그 시대에 그 먼 지역으로 이주를 가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였는데,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고려인 강제 이주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고, 과련 사진 및 지도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역사적 배경은 지금까지 살펴 본 한국사회 내 다문화인이 아닌 역으로 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라는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갖게 해주는데 중요한 배경지식이다. 학생들은 소설의 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비교해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지식 쌓기 활동은 추후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2) 토론 중 활동

①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

1차시에 읽은 소설과 토론 전 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활동을 하였다.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은 1, 2, 3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주제 : 소련이 사회 통합을 위해 고려인에게 펼친 언어교육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② 공동 토론(배심원 토론)

dCollection @ chosun

모둠별 토론활동을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하였다. 공동 토론은 3차 토론과 비슷하게 배심원 토론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과정은 3차 토론 수업과 같다. 소련이 사회통합을 위해 고려인에 펼친 언어교육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찬성팀, 그렇지 않으면 반대팀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3)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토론 후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록하여 다음 토론 할 때에 활용하였다.

- 토론 전에 소설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 고려인이 왜 중앙아시아로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② 비평글쓰기

토론활동 및 토론 평가가 끝난 뒤, 소설의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 되짚어보기 위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의 삶이나 대우를 비교하는 글쓰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토론했을 때와 비슷하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다양한 생각으로 글쓰기를 하였는데,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 텍스트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 5차 독서 토론 수업

5차 독서 토론 수업은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라는 책을 읽고 독서 토론 수업을 하였다. 이 책은 한 방송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제작하고 방영한 다문화 다큐멘터리를 엮은 것으로, 5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활용된 텍스트는 다문화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문화에 대한 방향을 소개한 부분이다. 4

dCollection @ chosun

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문화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고민해보고 토론하였다면, 5차 수업에는 텍스트에서 제시한 실제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들여다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 살펴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교육하고 나아가야할 지를 토론하였다. 5차 수업은 마지막 차례인 만큼 '다문화와 공존'을 수업의 방향으로 정하여 수업을 하였는데, 다문화주의와 여러 나라의 다문화정책, 그리고 한국인의 시선을 종합하여 앞으로 다문화사회가 동화가 아닌 공존으로 향하고자 하였다.

1) 토론 전 활동

① 글의 내용 이해하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과제로 텍스트를 읽혔고,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실제 방영되었던 이 텍스트 관련 프로그램 영상을 제시하였으나 독서 토론 수업은 무엇보다도 텍스트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수업에 사용한 텍스트는 책에서 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소개하는 부분과 순혈주의와 앞으로 다문화교육을 방향을 다룬 부분을 사용하였다.[33] 이 활동은 이번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읽혔지만, 세 가정의 특징 및 그들이 겪는 다문화인으로서 상처와 텍스트에서 제시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었다. 이 역시 3, 4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학생들 스스로에게는 자신만의 토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② 배경지식 쌓기

토론을 위한 기초 지식 및 자료로써, 동화와 공존에 대해 학습하였다. 동화와 공존은 2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배운 개념이지만 5차 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화와 공존을 좀 더 깊게 학습하여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먼저 학생들에게 2차 수업에서 배운 내용임을 상기시키면서 발문하였으며, 용어의 개념정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의 설명으로 개념 정리를 하였다. 이와 함께 다문화 동화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중국), 다문화 공존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미

33)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SBS스페셜 제작팀, 꿈결, 2012, pp146~184

dCollection @ chosun

국)를 예를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역사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인 사례를 제시하여 다문화가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왔음을 설명하였다. 교사의 설명이 끝난 뒤 학습지를 제시하여 다문화에서 동화와 공존이 어떻게 다른지 적도록 하였는데, 이 활동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 동안 배운 동화, 공존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내면화하여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토론 중 활동

①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

1차시에 읽은 소설과 토론 전 활동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토론활동을 하였다. 논제 제시 및 모둠 토론은 1, 2, 3, 4차 독서 토론 수업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토론 주제 :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한국사회에 동화시킬 것인가, 모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가르칠 것인가?

② 공동 토론(배심원 토론)

모둠별 토론활동을 바탕으로 공동 토론을 하였다. 공동 토론은 3, 4차 토론과 비슷하게 배심원 토론 방식으로 하였는데, 그 과정은 3, 4차 토론수업과 같다. 동화와 공존에 대해 언어교육과 연계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모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되면 찬성팀,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한국사회에 동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면 반대팀으로 나누어 토론하였다.

3) 토론 후 활동

① 토론 평가하기

토론 후에는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기록하여 다음 토론 할 때에 활용하였다.

- 토론 전에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가?
- 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적을 알고 있는가?
- 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갈등을 알고 있었는가?
-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원인을 이해하였는가?

dCollection @ chosun

- 우리나라 순혈주의에 대해 이해하였는가?
- 동화와 공존의 차이를 구분하였는가?
- 제시한 근거들은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었나?
-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② '한국인의 조건'찾기

토론 활동 및 토론 평가가 끝난 뒤 지금까지의 다문화 독서 토론 수업을 종합하는 활동을 위해 모둠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은 모둠별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시대 한국인의 조건'을 찾는 활동이다. 5차 수업의 주제가 '다문화와 공존'인 만큼 학생들은 앞서 동화와 공존에 대해 토론을 하였고, 다문화 정책적인 측면보다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한국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다문화시대에 과연 한국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말하는 한국인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2. 독서 토론 수업의 의의 분석

본 연구자는 다양한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실시한 독서 토론 수업을 토대로 다문화교육을 연구하였다. 다문화교육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분석하고 수업 중 실시한 토론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하였고, 수업이 끝난 뒤 개별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독서 토론 수업으로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독서 토론 수업을 하기 전 후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5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이 모두 끝난 뒤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독서 토론 수업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다문화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의의는 다문화 학습 태도의 긍정적 강화와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경험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다문화 학습 태도의 긍정적 강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배우는 정규 교육과정에는 구체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소가 없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주류집단, 즉 다문화인이 아닌 일반 학습자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자가 글로벌화되는 현 시대의 흐름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문화교육을 하기 위해 선택한 교수·학습 방법은 독서 토론 수업이었다. 독서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흥미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독서 토론 수업은 다문화 관련 텍스트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를 실행함에 있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독서 토론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데에는 학생들에게 많은 설득이 필요했다. 독서 흥미는 개인의 독서 행동과 독서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서 경험의 선택 현상으로 개인의 독서 생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며 개인 생활 전반의 문화 수준을 좌우하고, 개인의 인격 형성에 본질

dCollection @ chosun

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34]. 그러나 본 연구의 학습자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가 높지 않았고 흥미가 있더라도 주로 판타지 소설이나 추리 소설에 그쳐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히기는 쉽지 않았다. 독서 토론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텍스트는 학습자들의 독서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읽지 않으려 했고, 과제로 제시하여 읽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독서를 과제로 제시할 경우 대부분 읽지 않기 때문에 아침 자율 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독서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독서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독서 토론 후 소감문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독서 토론 소감문이다.

윤석우 : 다문화가 내 주변에 일어나지 않아서 잘 몰랐다. 근데 다문화 실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만든 걸 읽었을 때, 더 와 닿았고 더 도움이 됐다.
이혜원 : 다문화에 관해 토론을 잘하려면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야겠다.
임미지 : 책 읽고 토론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김수지 : 책 읽기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수업 들으면서 소설도 읽고 다문화도 알아서 좋았다.

<3차 수업 소감문>

학습자들은 소감문 중 “다문화 실제 있었던 일을 책으로 만든 거 읽었을 때, 더 와 닿았고 더 도움이 됐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 관련 텍스트에 관심이 높아졌고 그 효과를 실감하였다. 또한 “수업 들으면서 새로운 소설도 읽고 다문화도 알아서 좋았다.” 에서처럼 다문화 관련 텍스트에 대한 흥미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독서에 그치지 않고 읽은 내용을 확인하고 토론 전에 독후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의 읽기 활동은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다문화에 관해 토론을 잘하려면 책을 좀 더 자세히 읽어야겠다.”에서 나타났듯이 다문화를 주제로 한 토론을 하기 위해 기꺼이 책을 읽으려는 경향도 보였다. 또한 토론 활동을 하면서 평소 남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제안하는 데 어색했던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주장을 펼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34)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06, 독서교육사전, (주)교학사, pp203-204

dCollection @ chosun

한편, 학습자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아져 독서 토론 수업이 다문화교육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의식 다문화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평소 수업 태도는 교사의 지명에 의해 발표를 하거나 수업에 대한 흥미가 없고 왜 배워야 하는지 몰라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을 독서 토론 수업으로 하였더니 학습자들은 단순히 다문화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토론 전 활동, 토론 중 활동, 토론 후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보다 적극적인 수업 태도를 보였다. 먼저 5차례 모두 사용한 토론 전 활동은 '글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였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고 교사가 미리 준비한 텍스트 관련 질문지에 답을 쓰는 활동인데, 이는 학습자들이 다문화 관련 텍스트 안에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지 않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2차 다문화 텍스트의 경우 다문화 관련 용어나 개념을 묻는 질문이 많아 답을 찾은 뒤 '퍼즐 맞추기'를 통해 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보충학습을 하도록 하여 학습의 참여를 높였다. 학습자들이 답을 찾는 활동이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들과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연스럽게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토론 전 활동'을 하고 난 뒤 학생들의 수업 소감문이다.

정다솜 :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는데 쓰면서 다시 정리하니깐 도움이 됐다.
김상아 : 소설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이대용 : 발표는 몇 번 안했지만 써 놓은 거 읽으면서 발표하니 도움이 되긴 했다.
김수지 : 그냥 책만 읽었으면 토론할 때 내용을 잊어버렸을 텐데, 글로 적어놓고 그걸 보면서 토론하니 훨씬 도움이 되었다.
강전윤 : 솔직히 좀 귀찮았다. 그래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김도현 : 글 쓰는게 너무 싫었다.

<5차 수업 소감문>

학생들의 소감을 통해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에 관한 질문하는 활동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토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질문의 답을 글로 쓰는 과정을 귀찮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답을 찾는 활동을

dCollection @ chosun

하였고, 활동 후 학생들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토론 중 활동 중 '모둠 토론 활동'은 모둠원 모두가 다문화와 관련된 토론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나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토론 활동이 익숙하지 않아 머뭇거리던 학습자들도 자유롭게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를 학습지에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독서 토론 수업은 다문화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 스스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펼치고 논의할 수 있어 다문화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 동기의 향상은 다음 토론 후 면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훈 : 토론 자체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토론할 때 다문화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방해하거나 그런 건 안 좋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게 되구요.

노웅빈 : 애들끼리 말하고 하다보니까 토론하는 거, 앞으로 살아가면서 토론 비슷한 걸 많이 할 텐데, 말하는 것도 좀 더 나아지고 실생활에 말하는 데에 대한 찬성, 반대로 나눠질 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우 : 전 별로.. 그니깐 토론하는 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 애들은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문화나 이주노동자 얘기할 때 논리? 논리를 대고 논리를 도와주는 주장이라든지 근거를 찾아내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상아 : 책 읽기는 좀 귀찮은데,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말할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김수지 : 그냥 하는 것보다도 글을 읽고 세세히 생각을 하면서 읽고 하는 게 이해력에 도움이 되고 토론할 때 보충자료로 쓸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최종 면담 자료 전사본>

면담 자료를 보면 독서 토론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다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토론할 때 다문화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좋아요."에서 학습자들은 토론에 흥미를 느꼈다. 또한 "논리를 대고 논리를 도와주는 주장이라든지 근거를 찾아내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dCollection @ chosun

요.”, “이해하기 쉬워요. 그리고 말할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글을 읽고 세세히 생각을 하면서 읽고 하는 게 이해력에 도움이 되고 토론할 때 보충자료로 쓸 수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들은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이해력이 향상됨을 체감하면서 학습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습 동기는 3차,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그러나 1차 수업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 느끼기를 위해 다문화관련 사설을 읽었고, 2차 수업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익히기 위해 다문화 관련 설명문을 읽었다. 1차 수업은 다소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 낯설어하였고, 2차 수업은 다문화 관련 개념을 설명하는 글이다 보니 지루해하거나 어려워했고 토론 수업도 다소 생기가 부족했다. 반면에 3차, 4차 수업에서 다문화인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소설을 활용하여 다문화 수업을 진행하였더니 독서 활동에서 훨씬 재미있어 했고, 적극적으로 토론 활동을 펼쳐 다문화를 학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2차 독서 토론 수업 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상아 : 솔직히.. 오늘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어렵고.. 다른 걸로 했음 좋겠어요.
윤석우 : 토론할 때 글 읽은 게 별로 생각 안 났어요. 토론도 주장이 다 비슷해서 그냥 그랬구요.
정택화 : 토론 별로 참여 안하긴 했는데,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최명훈 : 음.. 아까 읽은 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다문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김다운 : 다문화주의? 우리나라에 많은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통계도 알고, 나름 유익했어요. 애들 말처럼 좀 어렵긴 했죠... 그래도 할 만 했어요. 허허.

<2차 수업 면담 자료 전사본>

면담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이 2차 독서 토론 수업을 힘들어했음을 확인할 수 있

dCollection @ chosun

었다. “오늘 것은 너무 어려웠어요.”, “토론할 때 글 읽은 게 별로 생각 안 났어요.”,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와 같은 학습자들의 반을 통해 2차 텍스트가 학습자들에게 다소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는 토론에도 반영되어 토론 활동에도 논거를 찾는 데 쉽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그래도 다문화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나름 유익했어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수지 : 책 읽기를 싫어하지는 않았는데 수업 들으면서 새로운 소설을 읽어서 좋았다.
백은숙 : 저번에는 좀 읽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쉬웠다.
이인애 : 글이 재미있어서 수업 들을 만 했다.
임미지 : 불쌍하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았다.
배명현 : 전에 것 보다는 다문화에 대해 더 아는 것 같다.

<3차 수업 소감문>

수업 소감문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문화를 배우는 데 설명문 또는 사설 형태의 텍스트보다는 소설 형태의 텍스트에서 더욱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들으면서 새로운 소설을 읽어서 좋았다.”, “저번에는 좀 읽기 힘들었는데, 이번엔 쉬웠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습자들은 이전 독서 토론을 통한 다문화교육 수업보다는 소설을 활용한 독서 토론 다문화교육수업에서 훨씬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다. 또한 “불쌍하고 안타까운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괜찮았다.”, “전에 것보다는 다문화에 대해 더 아는 것 같다.” 에서처럼 소설 독서 토론 수업이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나.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

다문화교육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문화에

dCollection @ chosun

대한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함께 품을 수 있을 때에 더욱 발전적이고 다문화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최근 다문화교육의 흐름도 과거 주류문화에 동화되어 주류집단의 사람처럼 전환되고자 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각 집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샐러드볼 정책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과 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우리가 다문화인이 되었을 때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고, 자문화의 정체성과 다문화주의를 함께 고민해보았다.

백은숙 : 저는 반대합니다. 고려인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 나라 언어를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김수지 : 보충할게요. 고려인도 자기나라의 언어와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처참히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짓밟고 언어를 자기 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중략)-

정선 : 저도 배심원입니다. 보충할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자기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네, 찬성팀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혜원 : 소련에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문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지 : 고려인들이 자기문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문화만 추구한다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 : 좀 더 의견을 정리해서 근거를 대어 말씀해주세요.

이혜원 : 어... 저희들도 막 이렇게 외국인이 지나가면 자기네들 말만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말하니깐 좀 꺼려지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소련인이 대부분이고 그 고려인이 한부분인데, 자기네들끼리 고려인들 말만하고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욕하나... 아니면 괜히 꺼려지고 하니깐... 그리고 기본생활하다 보면요. 그러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물건 사러 간다거나 도움을 청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같이 소통하고 살자는 건데.. 그냥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수지 :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소련인하고 고려인이 있어요, 소련말을 해요, 고려인하고 고려인이 있을 때 고려말을 쓰지 말라고

dCollection @ chosun

하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소련말을 써야 합니까? 소련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자기 언어가 있는데...

안소이 : 그러면 더 소련말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김수지 : 그 배우기 전 단계는 어떡합니까? 아직 모르는데... 아직 소련말이 익숙하지 않고 고려인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바디 랭귀지만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중략)-

김수지 : 일본의 지금 예를 들었으니 저도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이 일제 시대 라고 칩니다. 그러면 언어교육을 배우고 일본만 인정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4차 토론 전사본>

위 자료는 4차 독서 토론 수업의 일부분으로 한국에 있는 다문화인이 아니라 다문화인으로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타국에 있는 우리민족에 대한 동화정책에 대해 배심원 토론을 하여 학습자들의 생각을 펼쳐보았다. 3차 토론에서 한국에 있는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토론한 후 4차 토론을 펼쳤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다문화인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토론은 배심원 토론이다 보니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졌는데, 일부 학생들은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문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소련인이 대부분이고 그 고려인이 한부분인데, 자기네들끼리 고려인들 말만하고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중략)… 물건 사러 간다거나 도움을 청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같이 소통하고 살자는 건데...” 에서처럼 사회 통합을 위한 동화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시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인도 자기나라의 언어와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처참히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짓밟고 언어를 자기 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기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성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타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특히 “언어교육을 배우고 일본만 인정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dCollection @ chosun

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 민족의 힘든 삶을 떠올리면서 다문화인에 대한 동화의 폐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4차 토론은 타문화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못지않게 자문화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자문화와 타문화가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존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자문화의 정체성과 타문화의 공존에 대한 사고는 독서 토론 수업 전후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에 대한 인식변화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문항내용	반응 결과 (N=26)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낯선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수업전	1 (4%)	4 (15%)	9 (35%)	7 (27%)	5 (19%)
	수업후	0 (0%)	2 (8%)	6 (23%)	12 (46%)	6 (23%)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애쓰고 있다.	수업전	1 (4%)	1 (4%)	15 (58%)	7 (27%)	2 (8%)
	수업후	0 (0%)	2 (8%)	11 (42%)	10 (38%)	3 (12%)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중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과 한국문화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 정도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에게 '낯선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독서 토론 수업 전보다 후에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 의 대답이 26명 중 12명에서 18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독서 토론 수업 전에도 학습자들 중 절반이상이 낯선 문화에 대해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졌지만 다문화관련 텍스트 읽기나 토론활동을 통해 다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가 더욱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애쓰고 있다.'라는 질문을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는

dCollection @ chosun

지 조사하였는데, 독서 토론 수업 전 후로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의 대답이 9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하였다. 독서 토론 수업 전에 한국 문화에 대해 주체성을 가지려는 자세가 보였고, 독서 토론 수업 전에는 절반 이상의 학습자들(15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는데, 독서 토론 수업 후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학습자 일부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독서 토론 수업으로 다문화에 대해 수용하려는 태도와 한국문화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을 가지려는 태도가 동시에 증가함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한국문화를 지키려는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려 함을 알 수 있었다.

다.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경험

1)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 경험

뱅크스(2008)의 다문화교육 세 번째 목표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 그리고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데 있다. 주류 집단은 타문화에서 문화의 독특함과 풍부함을 알고, 소외 집단은 학습을 통해 공동체에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 목표에서처럼 다문화교육에는 주류문화 뿐만 아니라 소수문화 등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5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경험한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먼저 1차 수업에서는 다문화 관련 사설을 읽고 다문화 시선을 느끼는 토론 전 활동을 한 뒤, 다문화인 중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을 대상으로 토론하였다. 1차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이 주제에 대한 주장을 말해볼까요? 누가 말해볼까?

dCollection @ chosun

정 선 : 제가 먼저 말할게요. 어...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임금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번 돈에서 일부분을 세금으로 걷어 불법체류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면 불법체류자도 줄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영 : 그건 오히려 역차별이죠. 왜냐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임금기관을 세우려면 불법체류자 말고 이주노동자를 위한 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교사 : 선이와 미영이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임금기관을 세우자고 했어요. 이에 대한 반박이나 보충 있나요?

윤석우 : 전 보충이긴 한데요. 이주노동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고,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니깐 걔네들만 일하는 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이주노동자 중에서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누가 범죄를 안 저지를지 겉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만 모아서 일을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교사 : 아 임금기관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근무처를 말하는 거네요? 네, 다른 의견이 있나요?

김수지 : 저요. 근데 그런 기관들 때문에 또 범죄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철저하게 범죄를 감시해야하고, 우리나라가 수급자? 아,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최소한 비용만 대주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비자를 좀 세게 해서 불법체류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해요.

교사 : 네, 좋아요. 또?

정다솜 : 저도 비슷한데요. 이주노동자 사람들... 범죄 저지르면 그 벌을 더 강하게 주어야 해요. 아까 영상에서 6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일에 가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수하게 일하고 돈을 벌려는 외국인도 있으니깐 그 사람들 생활이나 인권같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보장해주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하는 거죠.

교사 : 또 다른 의견은 없나요?

안소이 : 근데요. 이주노동자들... 꼭 인권을 보장해줘야 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꼭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권보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닌 거 같아요.

이혜원 :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니깐 정당하게 일을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인권보장해주고, 불법체류자나 범죄 저지르면 바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소이처럼 나쁜 짓만 하는데 인권 보장이 왜 필요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독일 가

dCollection @ chosun

서 일하기도 했고,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으니깐 그런 사람들한테는 보조금이나 일자리 정도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1차 토론 전사본>

1차 토론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인권보장에 대한 방법으로 주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기관설립, 정부의 생활보조, 임금의 일부로 세금체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고, 인권 보장과 함께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권보장의 필요성마저 못 느끼는 학습자도 있었다. 첫 시간인 만큼 아직은 다문화인,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많았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2차 독서 토론 수업은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이해를 돕기 위한 토론수업으로 실시하였다. 학습자들은 2차 수업에서 다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방법 및 내용을 토론하면서 다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수 있었다. 2차 토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 자, 지금부터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자유 토론 할게요. 아까 모둠 토론에서 여러분들이 토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봅시다.

정선 : 우리나라 사람들이 색안경을 벗도록 정책을 내야하며, 다문화가족들은 우리나라에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와 예절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먼저, 선이의 의견에 이의제기하거나 보충이 있나요?

이미영 : 외국인 학교를 없애요. 같은 환경,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다보면 서로 익숙해질 거에요.

교사 : 외국인학교를 없애고 같이 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이네요. 여기에 의견이 있나요?

김수지 : 반박이요. 그... 같은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면 다문화가정 애들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도 따라오기 힘든데.

김상아 : 쌤. 그건 다문화가정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시작하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정선 : 수지말대로 다른 나라에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교육까지 같이 받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아말대로 다문화 애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애들이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잇도록,

dCollection @ chosun

우리 애들과 차이점을 못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해주어야 합니다.

교사 : 네, 좋아요. 다른 의견도 있나요?

이혜원 : 어... 아직 이런 우리같이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한 거리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근데 학교까지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 생각이 없어지기보다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을 것이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우리가 이런 점을 배려해줘야 겠구나' 하는 이해를 기르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우 : 솔직히 우리보다 먼저 다문화교육을 실시했다는 미국에서도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보니 나눠서 가르치는데, 아직 발전이 덜 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김근선 : 근데... 혜원이 의견은 수업을 같이 듣자는 건데, 이해가 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방과후 부서를 만들어서 수업했던 내용을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줌 될 것 같아요...

교사 : 같이 수업을 하되 부족한 부분은 방과후 부서를 만들자는 얘기도 했네요. 여기에 대한 보충이나 반박이 있나요?

윤석우 : 근선이의 의견도 결국은 우리나라 학생과 다문화 학생을 따로 가르치자는 거니깐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합니다.

정선 : 근선이 의견은 수업을 따로 듣자는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듣되 나중에 이해가 안된 애들은 따로 방과후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서 교육을 보충시키겠다는 의견이잖아요.

교사 : 네, 선이는 보충했죠. 여기에 보충이나 반박해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정다솜 : 그니까 외국인들이 이민을 온 이유는 배우려고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같이 생활하고 교육을 받아야 말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같이 수업을 해야 해요.

교사 : 상아와 비슷한 의견이네요. 다른 의견이 있나요?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는 게 좋겠는지.

손수지 : 우리문화랑 다른 문화를 혼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우리문화를 가르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다른 문화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교사 : 네, 서로에게 다른 문화를 가르쳐주자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혜원 : 저희가 장성중앙초등학교에 보면 막 영어타운 같은 시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막 그냥 간단한 시설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각자의 문화나 그런 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네요. 그러면 비용이 들겠죠.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dCollection @ chosun

정다솜 : 혜원이 말대로 그런 걸 만들면 돈을 받아요. 그니깐 다른 학교에서 보러 올 때 돈을 받아서 체험학습같이 하면 비용에 댈 수 있어요.

윤석우 : 솔직히 외국인들을 위한 소통센터 같은 거, 저기 광주 첨단에 가면 있는데...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이 많았을 정돈데..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관심도 없는데 괜한 돈 낭비인거 같아요.

교사 : 다문화가정은 오히려 없었다는 거죠?

윤석우 : 네.

손수지 : 그래도 소수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에요.

정선 : 소수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학교, 이런 단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체험학습 같은 거를 가도록...

안소이 : 비슷한데, 학교에서 단체로 체험학습을 가면 더 관심을 갖겠죠.

교사 : 수지, 선이 의견에 동의하는 거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손수지 : 우리 문화하고 다른 문화를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 여기에 대한 보충이나 반박이 있나요?

정선 : 랜덤으로 할 시에 다른 문화를 아는 거는 좋지만 굳이 필요 없는 문화까지 배우면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필수 언어, 예절만 갖추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차 토론 전사본>

2차 토론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다문화교육을 한다는 전제하였기 때문에 다문화에 긍정적, 부정적인 학습자들이 모두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내용 중 다문화인들에게 한국의 기본적인 예절이나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할 때, 다문화인과 한국 학습자를 분리해서 교육하느냐, 함께 교육을 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학교까지 따로따로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 생각이 없어지기보다는 여전히 다문화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을 것이고,…(중략)… 이해를 기르고 수용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중략)…그러니깐 같이 수업을 해야 해요.”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인과 한국 학습자를 분리하지 않고 한 공간에서 함께 배우자는 의견에 많은 학습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였다.

그 외에 다문화인들을 위한 기관 설립, 학교 내 다문화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dCollection @ chosun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일부에서는 다문화교육 자체에 대한 예산소요에 부정적인 학습자들도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관을 설립하여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되 입장료나 참가비 등 돈을 받아 그 비용을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어 학습자들의 다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문화인들을 위한 보충적 성격의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도 제시하여 학습자들은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교육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공존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통해 2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다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문화를 바라보면서 이를 학습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느끼기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소설 속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및 백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비교하여 생각해 보았다.

교사 : 그럼, 이제부터 배심원 토론을 할게요. 아까 배심원 토론 방법은 다 말했으니 모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찬성과 반대팀에서 각각 주장을 말해봅시다. 찬성팀이 먼저 말해볼까요?

최명훈 :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우선 영어는 세계 공용어고 우리가 자주 듣고 TV에서 자주 듣는데, 네팔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이질감을 느끼니까 우리가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자, 명훈이는 언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반박 있나요?

정선 : 어... 명훈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영어가 세계 공통 언어이기는 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팔어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만 잘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차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교사 : 네, 선이가 명훈이의 주장에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한 보충이나 반박이 있나요?

최명훈 : 아까 선이의 의견은 미국인이든 이주노동자든 외국어는 우리가 다 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

dCollection @ chosun

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 특유의 말투나 악센트가 있는데, 미국인 같은 경우는 시원시원하고, 이주노동자는 좀 말이 빠르고 서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질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다솜 : 그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인들도 우리말을 못 알아들을 텐데 그 사람도 우리한테 우리가 외국인노동자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당연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다솜이는 반박의견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나요?

조가영 : 길거리에 가보면 미국사람들은 우리가 좀 우월한 눈으로 쳐다보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 전혀 부담이 안 드는데, 네팔과 같은 이주노동자들을 보면 막 피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요. 그래서 그런 시선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김다운 : 예전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길을 가던 한국인이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총기난사를 당한 사건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백인들이 황인종이 꼴 보기 싫다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총을 쏘고 폭력을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러시아인한테 백인우월주의이다, 인종차별이다 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주노동자들보고 더럽다, 거지같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왜 차별하고 인식을 안 좋게 보는지 알 수 없어요.

교사 : 가영이는 그런 시선은 당연하다고 했고, 다운이는 그런 백인우월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아 : 제가 반박할게요. 다운이 말이 맞긴 한데 소설에서 보다시피 네팔사람들은 더럽고 환경이 안 좋은데서 살아서 막 몸에 곰팡이도 나고 그러는데,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다솜 : 만약에 몸에 곰팡이가 핀 사람이 미국인이나 자기의 가족이었어도 그렇게 피할 수 있을 건지 의문이네요.

김상아 : 일단 가족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얘기니까 그건 상관없고, 미국인들은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안 살았을 것 같은데요.

교사 : 네, 일단 상아와 다솜이가 다문화인의 외관적인 면의 시선을 토론했어요. 여기에 보충이나 반박이 있나요?

정선 : 저요. 호텔에 화장실이 있는 게 신기해서 발전됐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백인들이 씻기가 귀찮아서 냄새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 향수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 흑인들은 까맣니까 오히려 깨끗해 보이려고 잘 씻는데 백인들이 잘 씻지 않는다는 결과물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아의견에 반박합니다.

dCollection @ chosun

교사 : 네, 선이가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시선을 반박했네요.

최명훈 : 향수가 생겨난 거랑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래란 말 그대로 유래인데, 지금 이 시선에 대해 상관도 없고, 이 논제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사 : 아, 논제에 벗어났다? 어떻게 생각해요?

정선 : 하하... 향수이야기가 나오게 된 게 전에 백인이 부유해서 잘 씻고, 흑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이 더 못살기 때문에 안 씻는다는 말이 나와서 전혀 상관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아 : 전 안 씻는다고는 안했어요. 전 그냥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생활환경이 안 좋으니깐 몸에 곰팡이도 피고 더러운데, 일단 미국, 백인들은 향수를 뿌려서라도 가리고 냄새 없애고 그러잖아요. 차별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다운 : 애초에 동남아인들은 향수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백인은 잘 씻지 않더라도 돈이 있으니깐 향수를 사서라도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씻기도 힘들고 향수를 살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다운이가 반박을 또 했는데, 이에 대한 보충이나 반박이 있나요?

최명훈 : 요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협회도 있고, 다문화가정 복지정책들을 일부러 내세워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소설 하나 읽고 외국인들이 씻지도 못한다는 등 더럽다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차 토론 전사본>

위는 3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이주노동자 및 백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함께 토론한 일부분이다.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네팔과 같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는 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이질감을 느끼니까”, “네팔사람들은 더럽고 환경이 안 좋은데서 살아서 막 몸에 곰팡이도 나고 그러는데,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다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 가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호감이나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고, “영어는 세계 공용어고 우리가 자주 듣고 TV에서 자주 듣는데”, “미국사람들은 우리가 좀 우월한 눈으로 쳐다보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에서처럼 백인에게는 친밀감이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적 시선에 대해 일부 학습자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특히 3차 토론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인 ‘쿤’처럼 백인 문화에 우월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하거나 좇아가려는 성향도

dCollection @ chosun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인한테 백인 우월주의이다, 인종차별이다 라고 그렇게 욕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주노동자들보고 더럽다, 거지같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왜 차별하고 인식을 안 좋게 보는지 알 수 없어요.”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백인우월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면서, 그러한 차별적 시선이 옳지 않음을 느꼈고, 백인 우월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면서 여러 타문화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다르고 우리가 차별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문화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은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도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 독서 토론 수업 주제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삶’이었다. 이 주제로 토론 전 활동, 토론 활동, 토론 후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또다른 시선인 일제 시대에 강제 이주한 고려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4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실시한 러시아(구 소련)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방법을 토론하였다. 1, 3차 수업에서 살펴본 이주노동자와 같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문화인이 아닌 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을 읽고 토론 활동을 하였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리 민족, 고려인의 삶을 토대로 당시 소련이 사회 통합을 위해 고려인에게 펼친 언어교육의 정당성여부를 배심원 토론을 하였는데, 4차이다보니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사고가 이전보다는 조금 넓어졌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4차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사 : 지금부터 소련이 사회 통합을 펼친 언어교육의 정당성에 대해 배심원 토론을 할께요. 자 찬성팀 먼저 말씀해주세요.

안소이 :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고려인이 약한 것을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강했으면 영어처럼 자기 말을 알렸겠지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약한 걸 탓해야 합니다.

교사 : 찬성팀에서 반박해주세요.

백은숙 : 저는 반대합니다. 고려인이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 나라 언어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김수지 : 저 보충할게요. 고려인도 자기나라의 언어와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처참히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짓밟고 언어를 자기 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혜원 : 반대합니다. 아까 저희가 수업시간에 읽은 <하얀배>에서 배웠듯이

dCollection @ chosun

고려인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차별을 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언어를 배우게 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더 멀리한다면 그보다 더한 죽음까지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 나라 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려인들도 하나의 인간체이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 정착해 살고 있는 이상 그 나라가 뭘 원하든 거기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지 : 반박합니다. 힘이 없어서 그 나라에 살아서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 나라 말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우면, 배워두면 좋겠죠. 어쨌든 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언어는 통해야 하니깐. 근데 이 소설에서 보면 자기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아예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네, 다문화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보충이나 반박.

이대용 :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에 갔다하더라도 자신의 민족의 나라말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찬 : 우리가 이미 러시아에 갔을 때는 인권이라는 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나면 러시아 국민도 아니고 완전 노예로 팔려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자, 우리가 간 이유가 이민이 아니라 강제 이주니깐 그 언어교육은 정당하다고 했죠. 여기에 반박이나 보충이 있나요?

정다솜 : 저는 배심원 정다솜입니다. 저도 대용이 의견에 보충할게요.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말 써야한다는 법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쓴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지? 하하... 내가 만약 다른 나라 여행을 가도 우리나라 말을 쓰고 싶으면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우리나라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나라 말 하는 거에 상관하면 안 돼요.

교사 : 언어사용에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선 : 저도 배심원입니다. 보충할게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자기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네, 찬성팀 다시 말씀해주세요.

이혜원 : 소련에 고려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문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지 : 고려인들이 자기문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문화만 추구 한다는게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 : 좀 더 의견을 정리해서 근거를 대어 말씀해주세요.

dCollection @ chosun

이혜원 : 어... 저희들도 막 이렇게 외국인이 지나가면 자기네들 말만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상한 말하니깐 좀 꺼려지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렇다 하잖아요. 여기서도 소련인이 대부분이고 그 고려인이 한부분인데, 자기네들끼리 고려인들 말만하고 그러면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 욕하나... 아니면 괜히 꺼려지고 하니깐... 그리고 기본생활하다 보면요. 그러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물건 사러 간다거나 도움을 청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같이 소통하고 살자는 건데.. 그냥 배웠으면 좋겠어요.

김수지 :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만약에 소련인하고 고려인이 있어요, 소련말을 해요, 고려인하고 고려인이 있을 때 고려말을 쓰지 말라고 하면은 그러면 걔네들은 소련말을 써야 합니까? 소련말이 익숙하지 않은데... 자기 언어가 있는데...

안소이 : 그러면 더 소련말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김수지 : 그 배우기 전 단계는 어떡합니까? 아직 모르는데... 아직 소련말이 익숙하지 않고 고려인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 바디랭귀지만 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이혜원 :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하면 되잖아요? 하하하...

교사 :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주세요.

이혜원 : 수지의 한 언어만 쓰는 거는 안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하여튼 고려인에게는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교육은 필요해요. 강압적으로는 안되게...

김상아 : 배심원 김상아입니다. 저는 사회 통합을 위해 고려인에 펼친 언어교육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자기 나라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살려면 어쩔 수 없게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혜원 : 보충합니다. 어... 저희도 전에 일본한테 그런 걸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 대부분 그런 걸 거부하고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까. 네, 살기위해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지 : 일본의 지금 예를 들었으니 저도 일본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이 일제 시대라고 칩니다. 그러면 언어교육을 배우고 일본만 인정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다.

<4차 토론 전사본>

4차 배심원 토론은 사회 통합을 위해 소련이 펼친 언어교육에 대해 찬성과 반대 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였다. 찬성을 하는 대부분은 사회 통합인 만큼 그 나라에

dCollection @ chosun

적응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교육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반대팀은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교육은 강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주해온 사람들의 언어마저 짓밟고 못쓰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 나라의 언어가 말살되면 문화나 민족성까지 함께 사라지는 일이 생기므로 본래의 언어와 그 나라의 언어가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특히 "저희들도 막 이렇게 …(중략)… 그냥 배웠으면 좋겠어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빗대어 그들을 이해하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데 자기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처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어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시선이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 일부는 고려인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나라 및 민족의 약해진 탓을 지적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위해 배워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일부 학습자들은 강한나라 앞에서 약한 나라를 위로하기보다는 약해진 자신의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할 바에는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한다는 생각을 보였다. 이어서 4차 토론 후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시선의 다양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의 삶이나 대우를 비교하는 글쓰기'를 한 일부이다.

>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들은 강압적인 언어교육으로 인해 자신들의 민족과 문화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실직을 하였고 강제추방까지 당하였다. 또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못해 자신의 나라인 한국으로 오지도 못하였다.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에게도 민족어를 편히 알려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척박한 땅으로 추방당해 민족끼리 힘을 모아 살아가야 했었다.
>
> 이에 반해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백인이냐, 백인이 아니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진다. 백인이 아닌 동남아인나 흑인들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기 쉽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들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며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불리한 일을 당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는 어렵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라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자신의 나라에서 편히 살 수 있다. 언어의 자유가 있지만 생활의 편리성

dCollection @ chosun

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 하지만 한국인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힘쓰고 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차별대우가 있기는 하나, 고려인들의 대우나 삶이 더욱 어렵고 힘들다. 고려인이 강제이주를 당한 시기는 우리나라가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의 나라보다 더욱 힘이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적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생각해보며 지금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과거 고려인들도 우리 민족임을 잊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4차 토론 후 활동 – 비교 글쓰기>

위 글은 독서 토론 후 강제 이주한 고려인의 삶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쓴 글이다. 학습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시선에 벗어난 강제 이주된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살펴보면서 다양한 시선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글에서 보면 “고려인들의 대우나 삶이 더욱 어렵고 힘들다. …(중략)…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적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생각해보며 지금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안타까워하는 것만이 아닌 반대로 우리가 강제 이주되었을 때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3차와 4차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시선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서 이주노동자(동남아인 포함), 백인, 고려인 등 타문화에 대한 시선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였으나 이 외에도 새터민, 동북아인(일본 또는 중국인), 흑인 등 더 많은 타문화의 시선에 대해 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차 독서 토론 수업은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해 배우고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문화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다만 다문화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다문화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는데 5차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Collection @ chosun

교사 : 자, 지금부터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동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모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가르칠 것인지 배심원 토론을 할 거에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미영 : 동화해야 해요. 일단 여긴 한국이니깐, 한국사회의 문화에 적응을 다하고, 외국어를 배워도 늦지 않으니까요.

교사 :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해주세요.

최명훈 : 나중에 한국어를 배우고 나중에 외국어를 배워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실고에서.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외국어인 모국어를 같이 배워두면, 통역관과 외교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 해주세요.

이미영 :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뇌도 발달되지 않았고, 너무 어려서 어떻게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정 선 : 어린 나이니까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조기교육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단지 그 영어를 모국어인,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겠다는 겁니다.

김상아 : 조기교육을 받는다고 꼭 다 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원래 잘할 사람은 잘하는 거고 자기가 싫으면 잘 안 되는 건데... 조기교육을 한다고 다 똑똑하게 잘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수지 : 여기서 아까 조기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조기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계속 쭉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그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글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애들이 진학률이 떨어지는 게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조기 교육을 할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조기교육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솔직히. 제 주변에 저의 이모부가 일본분이여서 애기들이 일본인인 애가 있어요. 근데 조기교육을 한다고 일본어를 5살 때까지 가르치고 그 뒤로 안했는데 지금은 일본어를 아예 못해요. 한국어만 하고. 조기교육은 쭉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쭉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사 : 아,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네, 여기에 반박이나 보충이 있어요?

최명훈 : 아까 진학에 관련된 걸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고, 조기교육을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외국인인데 꼭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재하나를 사서 부모님이 그 자기의 모국어를 가르쳐도 그게 조기교육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건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막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영어 대화

dCollection @ chosun

를 할 수 도 있고 그런 정도의 모국어 실력을 말하는 거지 대학교 수준의 영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교육이 꼭 심각하게 강제로 가르치는 것과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영 : 조금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모국어는 취미를 배워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시는지...

교사 : 네, 미영이 의견에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혜원 : 저 보충 할게요. 어... 아까 전에 명훈 학생의 말이 앞뒤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기교육을 받아서 외교관이니 막... 통역사니 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전의 의견은 좀 맞지 않았어요.

김수지 : 아까 저기 명훈학생이 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상 소통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도 외국어는 저희를 보면은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늦게 배워도 일상적인 영어 대화를 하잖아요. 꼭 조기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 네, 지금 동화교육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찬성 쪽에서도 좀 말해주세요.

최명훈 : 제가 그 기본에 대해 말한 것 때문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학도 단계가 있듯이 영어도 기본이 있으면 배우기 쉬워집니다. 기본이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좀 더 쉽게 배우고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테니깐. 조기교육을 해서 기본이 있으면 그...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그...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 네 명훈이의 의견은 다시 둘 다 함께 배워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보충이나 반박해주세요.

이혜원 : 아.. 자기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이라면 늦게 배워도 조기교육 없이 늦게 배우더라도 그만큼 따라 갈 거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어... 왜 동화시킬 필요가 있냐면요. 평소에도 그냥.. 피부색깔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엄마가 필리핀사람이라는 등 아빠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는 등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모국어까지 배우면서 언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쟤는 완전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이네...' 하며 더 괴롭힘이 커질 것 같습니다. 흐흐.

교사 : 네 또 동화의견이 나왔죠. 여기에 찬성이나 반대 있나요?

정선 : 저희 말은... 외국어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한국어도 같이 가르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 외국어를 배워서 꼭 한국에서 외국어를 쓴다

dCollection @ chosun

는 게 아닙니다. 한국어를 씁니다. 모국어를 배워서 자기가 필요할 때에, 배워서 나쁜 건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에 필요하게 쓰이면 됩니다.

교사 : 배우는 건 나쁘지 않다? 네, 다른 의견 있나요?

강전윤 : 그래도 한국에서 사니깐요. 한국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나중에도 모국어를 배워도 안 늦을 꺼예요.

교사 : 여기에 보충을 할 수 있나요?

노웅빈 : 저는 반댄데요. 거리감은 이미 외모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나잖아요.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거리감이 과연 사라질까요? 그... 한국어만 써야 한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 읽은 거 있잖아요, 다... 다문화주의... 맞나? 그런거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죠. 한국어랑 모국어를 같이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훈 : 저도 보충할게요. 전윤이 말대로 하면 우리학교 원어민 선생님, 켄 있잖아요. 흐흐.. 그런 한국계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살면서 자기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있구요.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도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시선을 받지 않아요. 그냥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는구나. 그러고.. 근데 지금 한국어만 모국어로 배워야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선차이지, 쫌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지, 그걸 배우지 말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영 : 아예 가르치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냥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부모님이 그런 언어를 쓰니까 한국어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일단 한국어를 배우고 보자는 뜻 이거 아니예요?

교사 : 그건 동시에 배우자는 말이죠. 동화가 아니라.

이미영 : 한국어를 일단 학교에서 가르쳐요. 집에서 이제 모국어를 가르치는 거죠. 일단은 한국어 중심이죠.

정하현 : 일단 다른 나라에 살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먼저 일단은 그 나라에 있는 그 언어를 써야죠. 그럼 그 언어를 배우는 게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습니다.

김상아 : 우리나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뀌기 전까지는 동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훈 : 아까 고정관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어를 그냥 써야 하는 게 옳다 라고 했는데,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것 자체가 사회에 좀 부정적이고 남들 말을 듣기 싫어하는 좀 의견을 묵살시키는 그런 말이 포함된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도 그 고정관념을 유지해서 외국어를 배우면 안 된다, 한국어만 써야 한다는 건 인종차별적 발언인 것 같습니다.

dCollection @ chosun

교사 : 상아네, 즉 동화 쪽은 모국어를 배워서 안 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오류예요. 배우긴 하되 먼저 한국어를 배우자는 거죠.

최명훈 : 근데 먼저 외국어를 배우나 먼저 한국어를 배우든, 우린 같이 배우자는 건데 안배우자는 건 아닌데, 그걸 끝까지 한국어만 배우자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미지 : 저도 보충할게요. 오늘 읽은 거에서도 그랬잖아요. 그 교장선생님이 한말이요... 다문화가정 애들 장점을 살려서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면 아까 명훈이가 말한 외교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재로 키울 수 있어요. 동화하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5차 토론 전사본>

배심원 토론 결과, 동화와 공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다문화시대나 글로벌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중 언어를 가르쳐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먼저 충분히 한국어를 배워 한국인으로 동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근데 그 정도 외국어는 저희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늦게 배워도 일상적인 영어 대화를 하잖아요.”, “왜 동화시킬 필요가 있냐면요. 평소에도 그냥... 피부색깔 …(중략)… 더 괴롭힘이 커질 것 같습니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굳이 이중 언어를 한국어와 동시에 배울 필요가 없고, 나중에 배워도 충분하다는 이유였고, 이중 언어를 쓰는 데에 대한 거리감을 느낀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화에 대한 주장이 많이 펼쳐지기는 했으나, 다문화시대나 글로벌시대를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많았고, 이중 언어가 큰 장점임을 부각시키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외국어인 모국어를 같이 배워두면, 통역관과 외교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을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있으면 당연히 영어를 좀 더 쉽게 배우고 …(중략)…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만 써야 한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 읽은 거 있잖아요, 다... 다문화주의... 맞나? 그런거나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죠.”, “다문화가정 애들 장점을 살려서 …(중략)… 인재로 키울 수 있어요.” 등의 의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론을 통해 공존을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학습자들의 문화의 다양성이나 공존에 대한 인식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5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경험하고, 다문화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토론 수업이 끝나고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차 독서 토론 수업으로 학습자들은 다문화에 대한 사고가 넓혀지기 시작했는데, 다음은 3차 수업이 끝난 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의 학습자들을 면담한 내용이다.

교사 : 오늘 토론자로 토론을 했는데, 하고나니 다문화는 어때?

정다솜 :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들이나 다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랬어요. 쫌... 너무하다 싶기도 하고, 얘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싫어하는 게 좀 그랬어요. 다문화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줘야 할 것 같아요.

교사 : 너는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정다솜 : 어...저는 흐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물론 생김새가 별로 맘에 안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인데, 그냥 싫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친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흐흐.

교사 : 명훈이도 토론자였는데, 다문화가 어떤 것 같아?

최명훈 : 저는 솔직히 예전에 처음 토론 수업할 때는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일도 별로 안하고, 우리나라 돈도 물로 벌어가지만 가져가고, 그 사람들 외모도 별로였거든요. 하하.

교사 : 응. 그랬구나. 그럼 토론하고 좀 바뀐 것 같아?

최명훈 : 지금도.. 썩... 그렇게 반갑지는 않아요. 그 주인공이 근데 좀 불쌍하니깐.. 우리나라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하니깐 불쌍해요. 내가 그 나라 가서 그런 대우 받을 거 생각하면... 어휴...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교사 : 아... 그 사람들 처지가 안타까운 거구나.

최명훈 : 네,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당하게 얘들이 말한 것처럼 돈을 벌어간다면, 음.. 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거니깐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소설에서처럼 남의 돈 가져가고 물건 훔치고 그러면 바로 내쫓아야죠.

교사 : 그래, 그럼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최명훈 : 음... 저번 시간에 다문화주의가 뭐랬더라?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그 사람들 문화는 인정해줘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교사 : 아... 다문화를 받아들이되, 우리 문화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니?

dCollection @ chosun

최명훈 : 어... 그런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는 하긴 좀 그렇고, 흐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 3차 수업 면담자료 전사본>

위 면담에서 3차 토론에서 다문화인마다 다른 시선을 갖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던 학습자는 다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다문화, 다문화인의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차별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론 주제에 찬성 입장이었던 학습자는 다문화에 대해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보였으나, 다문화 관련 독서 활동, 토론 활동 등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다문화의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문제만 일으키지 않는다면요."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는 조금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5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이 모두 끝난 뒤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생각을 면담을 통해 조사하여 다문화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교사 :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 5번 토론수업을 했잖아. 수업을 하고나서의 다문화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이혜원 : 음... 그냥... 다문화라는 그런 거를 아까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나 TV에서만 보던 일이어가지구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이 아니니깐 그냥 아무것도 아니 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하는 태도를 보고 내 주변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하는 것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니깐 똑같이 대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교사 : 토론수업하고 나서 그렇게 바뀌었어?

이혜원 : 그렇죠. 그때는 그냥 내 일이 아니라서였는데, 만약 내 주변에 다문화가 있다면 관심을 갖고, 안 좋은 관심이 아니라 좋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교사 :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토론수업하고 나니까 어땠어?

윤석우 :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길에서 만나도 얼굴이 되게 화나있는 표정 같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수업을 하다보니깐 불쌍한 얘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수업을 계속 듣다보니깐 딱히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노력하고 있고 도와주는

dCollection @ chosun

사람들이 없어도 잘 살고 있고, 그냥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교사 : 굳이 도움이 필요는 없지만 긍정적으로는 바뀐 것 같다는 거구나.

윤석우 : 네.

교사 : 수지는 다문화관련 토론을 하고나니 어땠어?

김수지 : 그때 지난번에 한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다문화사람들과 고려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외부인들? 이주노동자 그런 건 싫어하고, 또 거기 가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건 또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나라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사 : 그럼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계속 진입할건데,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어?

김수지 : 그 문화 가치관을 인정하고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 사람 나름의 문화대로 사는 게 좋아?

김수지 : 나름대로 문화대로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하고 어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야 하고.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인처럼 막 염색하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쫌 꼴 보기 싫거든요. 자기도 자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완전 방치하고 남의 문화만... 선진국만 쫓아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교사 : 아, 사대주의처럼?

김수지 : 네. 왜냐하면 다른 문화가 섞여서 융화되면 더 좋은 문화가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발전되고 폭 넓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선진국에만 박혀서 쫓아가려고 하니깐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교사 : 선이는 다문화에 대한 토론수업하고 나니 어땠어?

정선 : 처음에 다문화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선입견 가지고... 외국인들이 지나가면 가까이하고 좀 그랬는데, 토론수업하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 좋았어요.

교사 : 명훈아, 너는 다문화 토론수업하고 나니 어땠어?

최명훈 :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랑 큰 차이는 아닌데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교사 : 토론수업하고 나서도 그러는 거야?

최명훈 : 뭐...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면서 남의 시선도 느끼고 하니깐 좀 더 여러 가지생각을 가지고... 음... 쫌 살짝 부정적이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5차 수업 면담 자료 전사본>

dCollection @ chosun

위 면담의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은 다문화관련 독서 토론 수업으로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뀐 학습자들이 많았다. 면담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처음에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학습자들이었는데, 학습자들과 면담한 결과 "토론수업하고 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어 좋았어요.", "애들이랑 이야기하고 하면서 남의 시선도 느끼고 하니깐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음... 쫌 살짝 부정적이었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관련 텍스트를 읽고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기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교사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 사람 나름의 문화대로 사는 게 좋아?" 라는 발문에 "나름대로 문화대로 사는 게 더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더 발전하고 어울리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야 하고. …(중략)… 선진국만 쫓아가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라는 대답을 보면 다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문화도 함께 지키려는 태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5차례의 독서 토론 수업이 모두 끝난 뒤 학습자들의 소감문을 통해서도 다문화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영 : 비슷하다. 하지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좋아졌다.
정하현 : 다문화에 대해 배웠지만 막상 닥치게 되면 좀 꺼려할 것 같다.
이혜원 : 배우긴 했는데 막상 주변에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심각하다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임미지 : 다문화라는 걸 잘 몰랐지만 이 수업을 통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알았다.
이대용 : 생각이 좋게 달라졌다.
김근선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달라졌다. 다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인애 :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다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 좋았다.
배명현 : 긍정적으로!
윤석우 : 부정적 → 긍정적 → 무관심

dCollection @ chosun

최명훈 : 수업보다는 재미있었다.
김수지 :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문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정다솜 :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존중받아야 한다.
김상아 : 다문화 가정을 좋은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조샛별 : 그냥 다 더럽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해심이 커졌다.
강전윤 : 외국인을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

< 최종 수업 소감문>

소감문을 작성한 학습자들 대부분은 다문화 관련 독서 토론 수업을 하고 나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좋아졌다.”, “생각이 좋게 달라졌다.”, “다른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즘은 이해심이 커졌다.” 라고 말한 학습자들의 소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다문화 가정이 좀 더 존중받아야 한다.”, “다문화 가정을 좋은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러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닥치게 되면 좀 꺼려할 것 같다.”, “막상 주변에 그런 상황이 없어서 그런지 심각하다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부정적 → 긍정적 → 무관심”, “외국인을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이라고 말하는 학습자들도 있어 여전히 다문화를 꺼리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학습자들도 있어 학습자들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이와 같은 다문화에 대한 다양성 및 다원성의 경험은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연계되면 이는 독서 토론 수업 전후로 실시한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변화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도

문항내용	반응 결과 (N=26)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동남아 사람들은 왠지 더러워 보인다.	수업전	3	5	7	8	3
		(12%)	(19%)	(27%)	(31%)	(12%)

dCollection @ chosun

	수업후	2	6	10	7	1
		(8%)	(23%)	(38%)	(27%)	(4%)
나는 흑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수업전	2	3	5	8	8
		(8%)	(12%)	(19%)	(31%)	(31%)
	수업후	3	1	7	14	1
		(12%)	(4%)	(27%)	(54%)	(4%)
나는 동남아시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수업전	3	2	7	6	8
		(12%)	(8%)	(27%)	(23%)	(31%)
	수업후	0	3	7	15	1
		(0%)	(12%)	(27%)	(58%)	(4%)
나는 탈북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수업전	3	1	7	9	6
		(12%)	(4%)	(27%)	(35%)	(23%)
	수업후	0	3	8	13	2
		(0%)	(12%)	(31%)	(50%)	(8%)
나는 백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수업전	0	1	6	10	9
		(0%)	(4%)	(23%)	(38%)	(35%)
	수업후	1	4	6	14	1
		(4%)	(15%)	(23%)	(54%)	(4%)
나는 흑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수업전	4	7	9	4	2
		(15%)	(27%)	(35%)	(15%)	(8%)
	수업후	4	5	11	5	1
		(15%)	(19%)	(42%)	(19%)	(4%)
나는 동남아시아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수업전	5	9	7	3	2
		(19%)	(35%)	(27%)	(12%)	(8%)
	수업후	2	6	11	6	1
		(8%)	(23%)	(42%)	(23%)	(4%)
나는 탈북자와 가족이 될 수 있다.	수업전	4	5	8	6	3
		(15%)	(19%)	(31%)	(23%)	(12%)
	수업후	2	4	11	8	1
		(8%)	(15%)	(42%)	(31%)	(4%)
나는 백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수업전	4	4	9	6	3
		(15%)	(15%)	(35%)	(23%)	(12%)
	수업후	2	8	9	6	1
		(8%)	(31%)	(35%)	(23%)	(4%)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다문화인인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시선 변화를 살펴보았다. ‘동남아 사람들은 왠지 더러워 보인다.’라는 질문에 독서 토론 수업 전 후의 반응결과,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대답은 변화가 없었고,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의 대답이 11명에서 8명으로 줄어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조금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보통이다’의 대답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었는데, 학습자들은 독서 토론 수업 전 부정적 입장이었던 학습자들이

dCollection @ chosun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바뀌어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시선의 입장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문화인과 친구와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여 그들과 어느 정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나는 다문화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질문에 독서 토론 수업 전과 후의 반응결과는 큰 변화 없이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독서 토론 수업 전에는 다문화인 중 26명 중 19명의 결과가 나온 백인에게 더 우호적인 입장이었으나, 수업 후에는 흑인 15명, 동남아시아인 16명, 탈북자 15명, 백인 15명으로 다른 인종보다 백인에게 더 우호적이었던 태도는 줄어들었고,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14명에서 16명으로 조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종에 대한 수용하려는 태도가 독서 토론 수업 전보다는 더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다문화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질문에 독서 토론 수업 전과 후의 반응결과는 큰 변화 없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대답이 많았다. 독서 토론 수업 전보다 후의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대답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백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독서 토론 수업에 관계없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을 느꼈다.

2) 협동심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경험은 다문화 사이에서 협동심을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 연구들에 의하면 협동 학습은 학습자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주고 경쟁 학습에서와 같이 동료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그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고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진 약점보다는 장점을 받아들이는 경험으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하면 긍정적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준다고 알려져 왔다.[35] 본 연구는 협

35) 이바름, 초등사회과 협동학습이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p23

dCollection @ chosun

동심 강화가 초점은 아니었으나, 독서토론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에게서 협동심이 길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독서 토론 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은 토론 전 활동, 토론 활동, 토론 후 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 다양한 독서 토론 수업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갈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학습자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통한 독서 토론 수업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다문화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협동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할 수 있었다.

먼저 학습자들의 협동심은 '토론 활동'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다문화와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몸소 체험하였고, 특히 같은 주장 내에서도 서로 협력해야 함을 느꼈다. 학습자들과 면담하면서 협동심을 확인하였다.

정하현 :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서러움 당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일도 하고 도움도 많이 주는데, 다르게 생겼다고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니깐 같이 도와주며 살면 될 것 같아요.

조샛별 : 토론하는 거 보니깐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한 외국인만 말했는데, 좋은 일 하는 외국인도 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르다고 생각안하면 될 것 같아요.

백은숙 : 그냥... 싫어하지만 않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도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요?

최명훈 : 토론 자체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토론할 때 다문화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방해하거나 그런 건 안 좋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게 되구요.

윤석우 :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제가 잘 못 알고 들었던 것을 토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책을 보고 토론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보고 토론하는 거니깐 그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종 수업 면담 자료 전사본>

위의 면담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다문화인들과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다르게 생겼다고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

dCollection @ chosun

은 사람이니깐 같이 도와주며 살면 될 것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안하면 될 것 같아요.", "싫어하지만 않음 될 것 같아요."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차별성을 버리고 동정보다는 우리나라에 사는 같은 국민으로서 대우하고 서로 도와야 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토론할 때 다문화에 대해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 말을 방해하거나 그런 건 안 좋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하게 되구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제가 잘 못 알고 들었던 것을 토론할 수도 있는 거고 … (후략)" 에서 학습자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펼쳐야 함을 느껴 협동심과 신중한 태도도 함께 기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협동심은 '토론 후 활동'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고 토론을 펼친 뒤 활동들을 하면서 학생들은 협동심을 필요로 하였다. 2차 독서 토론 수업의 토론활동에서 제시된 다양한 다문화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분야별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토론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토론 내용을 개개인에게 내면화할 수 있고, 토론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참여한 모둠은 6모둠이므로 교사가 6개의 정부 부처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부로 다문화와 쉽게 연계될 수 있는 부처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만든 부처별 다문화 정책은 다음과 같다.

<표 8> 토론 후 활동 - 다문화 정책 만들기

모둠	정부부처	다문화정책
1모둠	교육부	•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다. • 일반 학생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모둠	보건복지부	• 다문화가정 중 소득이 낮은 가정은 더욱 의료비를 싸게 해준다.
3모둠	기획재정부	• 다문화가정의 아이나 학생을 위한 예산을 늘린다.
4모둠	문화체육관광부	• 다문화가정들에게 여행지 할인을 더 많이 해준다. • 다문화와 관련된 게임을 개발하여 간접적으로 다문화를 알게 한다.

dCollection @ chosun

		• 다문화가정을 위한 월드타운을 만들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익히게 한다.
5모둠	여성가족부	• 농촌에서 국제 결혼한 여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한국 문화, 예절 등을 단계적으로 가르친다.
6모둠	농림축산부	•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에게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을 싸게 빌려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토론 후 활동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각각의 모둠 모두가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면서 서로가 협력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일반 학생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월드타운을 만들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서로 익히게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과 다문화인이 함께 협력하여 살아가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3차 독서 토론 수업의 '토론 후 활동'에서도 학습자들이 다문화인들과 협력하여 살아가야 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차 독서 토론 수업에서 '토론 후 활동'으로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를 하였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이 주인공의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인 주인공을 도우며 살아갈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토론 후 활동에서 쓴 편지의 일부이다.

> 안녕, 난 백은숙이야.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너는 괜찮을지 걱정된다.
>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너가 들려주었던 너의 주위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새삼 많은걸 느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단다.
> 너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국인들에게 학대를 받으며, 억압받는다는 것을 보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창피하고 미안해.
> 또 너가 소영이 오빠랑 다툰 후에 너의 아버지께서'다음에라도 녀석이 때리거든 피하지 말고 맞아줘.'라는 대목을 읽고 정말 마음이 아팠단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자신의 자존심마저 짓밟혀야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 슬퍼.
> 그리고 너의 주의사람들인 아버지, 비재 아저씨, 쿤 형, 노랭이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무시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며, 외국인 노동자의 처참한 삶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어. 또 백인처럼 보이기

dCollection @ chosun

위해 리바이스 청바지와 나이키 점퍼를 입고 머리를 물들인 쿤형이 나중에는 한국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세 개까지 잃은걸 보고 잘못된 백인우월주의를 느끼게 되고, 외국인노동자의 슬픔을 느끼게 되었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불리한 차별대우, 이런 문제는 정말 큰 문제니까 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어. 아직 나는 고등학생이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혹시나 우리 반에 너와 같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다면 정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긍정적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내. 그리고 너도 아버지고향으로 빨리 돌아가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의 행복과 외국인노동자의 부당한 차별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이만 줄일게.

<3차 독서 토론 후 활동 – 편지 쓰기1>

안녕? 난 장성실고에 다니는 2학년 이인애라고 해. 너보다는 나이가 좀 더 있는 누나란다. 너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너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하다. 우리 집도 그렇게 못사는데 너의 집의 얘기를 들어보니 넌 더 힘들어 보여. 그런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에서 무시를 받는 걸 보니 나 같으면 안 다녔을 것 같아.

그런데 너네 동네에 있는 외국인들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애. 너나 너의 아버지는 착한 것 같은데 비재아저씨나 노랭이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뉴스에서 외국인들 범죄가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아니냐? 조심해. 우리나라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니깐 더 그런 걸 거야. 너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까 읽어보니깐 너도 슈퍼에서 물건을 훔쳤잖아.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그런 걸 배워서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네. 나중에 그런 게 습관이 돼서 큰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니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너가 대단해. 집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게 널 반기지 않는데, 꿋꿋하게 살고 있잖아. 지금보다 더 힘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면, 아마 네 주변의 사람들도 너를 도와주고 좋은 대우를 해줄 거야.

항상 착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잘 이겨내. 파이팅!

<3차 독서 토론 후 활동 – 편지 쓰기2>

두 장의 편지 모두 학습자들은 한국에서 다문화인으로 받아야 하는 차별대우, 모멸감 등을 함께 공감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해주지 못함에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첫 번째 학습자에 비해 두 번째 학습자는 외국인 범죄에 우려하고 있었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당부하였다. 두 번째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모

dCollection @ chosun

습을 보였다. 이처럼 독서 토론 수업으로 학습자들은 다문화가정, 다문화인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에 모두 공감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문화에 대한 협동심은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한 반응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 9>는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한 협동심 반응 설문결과이다.

<표 9> 독서 토론 수업으로 인한 협동심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	독서 토론 수업으로 토론할 때에 나의 팀이 승리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싶어졌다.	0	1	7	11	7
11	나와 가까이에 있는 다문화인들이 힘들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다.	1	2	6	11	6

“독서 토론 수업으로 토론할 때에 나의 팀이 승리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싶어졌다.”는 질문에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의 대답이 18명으로 절반이상의 학습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가까이에 있는 다문화인들이 힘들 때 기꺼이 도울 수 있다.”라는 질문에도 ‘그렇다’ 와 ‘매우 그렇다’의 대답이 17명으로 절반이상의 학습자들이 다문화인들을 도우려는 협동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독서토론수업을 통한 다문화교육 연구'로서 독서 토론 수업으로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독서 토론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특성화고 2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관련 텍스트를 통한 독서 토론 수업을 15차시 실시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실천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Ⅱ장에서는 다문화교육과 독서 토론 교육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는데,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한국에서 다문화교육의 현실, 그리고 국어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지향을 살펴보면서 학습자들에게 적용해야 할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정하였다. 또한 독서토론교육의 이해 및 방법을 연구한 문헌을 토대로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국어교육, 그 중에서 독서 토론 교육을 제시하여 독서 토론 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의 지향할 점을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통한 독서 토론 수업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자가 재직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하였다. 이에 독서 토론 수업은 5회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수업은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다문화',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 '다문화가정의 삶',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민족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다문화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매 회 토론 전 활동, 토론 중 활동, 토론 후 활동으로 구성하여 계획하고 실시하였다.

Ⅳ장에서는 위의 계획을 실제로 적용한 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다문화 관련 텍스트를 읽고 독서 토론 수업한 과정은 주제별 수업 차시마다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을 위한 독서 토론 수업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먼저 학습자들이 다문화를 학습하면서 학습하는 태도의 긍정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다문화를 학습하면서 나타나는 '자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탐구영역인 '다문화에 대한 시선의 다양성과 다원성의 경험' 으로 나누어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의 의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취지에 맞는 독서 토

dCollection @ chosun

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시간에서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학습자들의 읽기활동을 독려하거나 토론 수업을 전개하는 것이 힘들었다. 또한 본 연구가 비록 사전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6명의 학습자들 모두가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지 않아 연구하는데 문제이기도 하였다. 특히 독서 토론 수업을 왜 하는지에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학습자들도 있어 그러한 태도를 가진 학습자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관련 독서 토론 수업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다문화'를 물으면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여성을 먼저 떠올린다. 우리 주변에 산재하는 여러 미디어 매체들이 다문화의 초점을 이주노동자가 국제결혼여성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지금 한국인들이 느끼는 다문화에 대한 시선을 보여주고, 다문화와 관련된 개념을 이해시킨 다음에 소설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다문화가정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연구 내 많은 학습자들이 다문화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공감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에 대해 무관심한 학습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이질적인 외모나 언어, 문화에 탐탁치 않아하거나 꺼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꾸준한 독서를 통해 다문화에 접근하고 토론 전 활동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며, 토론 활동으로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으며, 토론 후 활동으로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은 점차 다문화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습자들이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다문화 관련 독서 토론 수업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독서토론수업이 학습자들의 유연성을 길러 올바른 토론 태도를 가지게 해주고 나아가 바람직한 토론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는 소통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유연성이나 개방성의 부족이다. 이는

dCollection @ chosun

자신의 주장만 관철시키려 하거나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태도인데, TV토론이나 대담에서도 가끔 볼 수 있으며, 가정에서 학부모와 학습자의 대화와 토론할 수 있는 문화의 부재나 학교에서 부족한 토론수업이 어색한 소통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토론이 유연성, 즉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소감문이나 면담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학습자들이 토론을 하면서 내 의견이 전부가 아니라 타인의 의견도 있고, 그 의견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말해주듯이 일부 학습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독서 토론 수업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다른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는 또 자신의 내면에 영향을 미쳐 비로소 자신의 시각을 변화하는 모습은, 그들이 토론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셋째, 학습자들은 일반 다문화 토론 수업보다 다문화 관련 독서 토론 수업에서 더욱 흥미와 학습 의욕을 느꼈다. 1차 독서 토론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영상과 비교적 짧은 텍스트를 함께 제시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점차 학습자들에게 독서의 양을 늘렸는데, 책읽기를 싫어하거나 일부 특정 부류의 소설만 즐겨 읽던 학습자들이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과제수행을 위해서 교사가 제시한 텍스트를 기꺼이 읽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에게 토론활동을 하게 한다면 무작정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추측이나 근거 없는 논거만을 내세워 자신의 주장만 강요하기 쉽다. 그러나 독서 토론은 이와 같은 토론 활동을 좀 더 의미있게 해주고 토론 주제에 엇나가지 않으며, 텍스트 내 논거를 활용하기 때문에 좋은 논거가 뒷받침되는 주장이 있는 바른 토론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앞서 면담조사에서도 밝혔듯이 학습자들은 독서활동이 토론 수업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데 좋은 논거가 되었음을 실감하였다. 또한 논거를 마련하는데 텍스트가 깊이 있고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지식이 텍스트와 결부되어 주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됨을 느꼈다. 또한 같은 텍스트를 읽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보충할 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Collection @ chosun

다문화사회란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회, 그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 이제 우리는 지금 보다 더 다양한 인종이 섞인 혼혈인, 우리보다 더욱 어두운 피부를 가졌거나 금발의 외국인, 한국어가 어색한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을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문화를 비단 국제결혼가정이나 이주노동자로만 한정하거나 낯선 문화의 배척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백인우월주의식 사고, 그리고 잘못된 단일민족사관 등은 우리 사회에서 고쳐져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사회 갈등이 생기는 것은 뻔한 일일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먼저 세계적이고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시선들을 인지하여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다문화를 바라보지 않고 학습자들에게 바른 다문화와 관련된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에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본 연구자가 실행했던 토론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업 모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방법은 범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사회 및 도덕교과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어교과에서도 문학작품의 소개에 한정되어 미치고 있다.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수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교과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업모형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본 연구의 경우 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연구였으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급에 점차적으로 많아짐을 고려할 때,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이 섞여있을 경우 그들 전체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범교과에서 다양한 방법이 요구된다. 이 뿐 아니라 현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가 인종이나 국가의 다양성에 기반한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저변에 널리 자리 잡고 있는 성, 장애, 종교, 그리고 계층의 다양성에도 접근하여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성을 이해하여 그들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영역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어교육을 살펴 볼 때 아직도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 걸음마 단계이다. 많은 국어교사가 실감하는 있는 문제는 교과서 내 다문화 제재의 수이

dCollection @ chosun

다. 점차적으로 교과서 제재로 다문화가 선정되고 있기는 하나 매우 한정적이다. 다문화 제재는 문학작품이 우선적이나 그 외에도 신문기사나 연설문, 영화 시나리오 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제재를 발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연구 방법으로 독서 토론을 활용하였다. 이 역시 국어교육의 한 분야이며, 국어 교과 시간에 토론 전, 중 후 활동으로서 독서 토론 수업 내에서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이다. 다문화교육은 독서 토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국어 교과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수업 모형이나 다문화 제재를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비평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을 독서 토론으로 활용하였을 때, 독서 토론 지도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 토론에 관심을 가진 많은 교사들은 독서 토론 지도 방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독서 토론 지도에 힘을 쓰고 있다. 이에 독서 토론 수업을 활성화하여 학습자들에게 독서 토론 문화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독서 토론의 장점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올바른 독서 토론 문화는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 다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다문화 독서 토론 활동은 학교에서의 토론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교외 토론대회로 이어져 다문화와 관련된 토론을 통해 그 의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실생활에서 연결되어 올바른 다문화사회의 시민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독서 토론 수업을 할 때 토론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다양한 연수나 연구를 통해 토론 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문화를 주제로 독서 토론 수업을 할 때에는 다문화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인지가 필요하고, 제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여 토론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단지 토론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위한 토론 전 활동, 토론을 하고 나서 토론 후 활동이 연계되어 과정 중심의 독서 토론 수업이 된다면 다문화교육을 하는 데 있어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다문화 제재 및 토론 수업에 대한 충분한 인지 및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dCollection @ chosun

또한 독서 토론 수업은 비단 국어과의 과제만은 아니다. 범 교과에서 다양한 다문화 제재를 활용하여 독서활동을 하고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교과에 적합한 독서 토론 학습 모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독서 토론 뿐 만 아니라 다문화 제재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토론 활동도 함께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범 교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용신(2009),『다문화교육론서설』한국학술정보.

김재영(2005), 『코끼리』, 실천문학사.

김주환(2009), 『교실토론의 방법』, 도서출판 우리학교.

다문화교육방법연구회(2010), 『교실 속 다문화교육』, 학이시습.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박영목 외(2010),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교육.

박은종 외(2011),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원진숙 외(2010),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사회평론.

이연호 · 신동명(2012), 『선생님을 위한 토론 교과서』, 봄풀출판.

이재승(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이정옥(2008),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전라남도교육청(2011), 『국어과 독서 토론 수업 길라잡이』.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2006), 『독서교육사전』, 교학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2011),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담북스.

한철우 외(2012), 『국어교육 연구방법론』, 박이정.

Carl A. Grant, Christine E. Sleeter, 김영순 . 배을규 역(2013),『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북코리아.

James A. Banks, 모경환 역(2008),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SBS스페셜 제작팀(2012), 『다른 게 나쁜건 아니잖아요.』, 꿈결.

2. 학술지

강태완 · 장해순(2003), 토론능력의 척도의 타당성 검증연구, 『한국방송학보통권』, 17

김연권 · 노재윤(2010), 국어교과에서의 다문화교육 :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dCollection @ chosun

및 적용, 『다문화교육』, 1, No.3.
김혜영 · 전은주(2010),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수업 : 중등 다문화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양상 분석, 『國語敎育學硏究』, 38.
모경환 · 이혜진 · 임정수(2010), 다문화 교사 교육과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 2010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No.1.
모경환 · 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수도권 국어,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 No.3
민용성 · 최화숙(2009),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학교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9, No.3.
박영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중등학교 국어교육, 『國語敎育學硏究』, 34.
박윤경(2007), 지식 구성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독서연구』, 18.
서미경 . 송윤숙 . 조현행(2011), 창의적 글쓰기를 위한 독서토론 수업의 모형, 『독서교육연구』, No7.
신희선(2012),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독서토론 수업 사례, 『사고와 표현』, 5, No.1.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국어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의식, 『國語敎育學硏究』, 46.
이경희(2011), 다문화사회 교육의 두 관점: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다문화교육』, 2.
이형래(2009), 교실 독서토론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No39.
장인실 · 유영석(2010), 다문화 교육 모형과 교과서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 방법의 효과성 연구, 『초등교육연구』, 23, No.1.
전은주(2009), 다문화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國語敎育學 硏究』, 34.
최충옥 · 조인제(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1, No.1.
Banks(2007), “Approach to multicultural curriculum reform" in Banks, J.A & Banks, C.M.A.(eds), *Multicultural Education:Issues and Perspectives(six edition),* San Francisco, CA:John Wiley & Sons, Inc.

dCollection @ chosun

3. 학위논문

김문자(2010), 중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2003),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통합 독서 토론논술 프로그램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복희(200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과정중심 독서지도의 방법과 실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은(2010), 문학 제재를 활용한 다문화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은(2013), 소집단 독서 토론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독해 양상 연구, 고려대학원 교육대학원 박사논문.

김진희(2010), 영화를 활용한 토론 수업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철(2002), 토론 학습을 통한 고등학교 국어 교수-학습 능력 신장 방안,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희(2012), 독서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토론 모형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성미(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교육 : 다문화가정 정책 및 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바름(2011), 초등사회과 협동학습이 다문화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민(2009),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한 전문계학생의 독서지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기(1997), 작문학습에서의 동료평가활동 과정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혜(2012), 초등학생의 토론태도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아(2009), 다문화교육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순천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석사학위논문.
이현숙(2006), 토론교육을 통한 중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상환(2013),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양상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복자(2006), 토론 교육의 수업 모형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숙기(2007), 다문화시대의 국어교과서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규(2005), 고등학교 사회과 토론수업에 관한 질적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광영(2003), 독서 토론을 위한 비판적 사고력 신장 방안,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인터넷 사이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실(http://www.immigration.go.kr)
NCIC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자료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5] - 국어과 교육과정)

dCollection @ chosun

부록

1. 다문화 교육 연구를 위한 설문지

1) 다문화 인식 및 태도 설문지

※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 및 태도를 조사를 위한 설문입니다. 잘 읽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동남아 사람들은 왠지 더러워 보인다.	5	4	3	2	1
2	나는 흑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5	4	3	2	1
3	나는 동남아시아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5	4	3	2	1
4	나는 탈북자와 친구가 될 수 있다.	5	4	3	2	1
5	나는 백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	5	4	3	2	1
6	나는 흑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5	4	3	2	1
7	나는 동남아시아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5	4	3	2	1
8	나는 탈북자와 가족이 될 수 있다.	5	4	3	2	1
9	나는 백인과 가족이 될 수 있다.	5	4	3	2	1
10	낯선 문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다.	5	4	3	2	1
11	다양한 문화를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에 애쓰고 있다.	5	4	3	2	1
12	다문화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13	우리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3	2	1
14	다문화교육은 우리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을 발달시킬 것이다.	5	4	3	2	1
15	다문화교육이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게 도울 것이다.	5	4	3	2	1
16	모든 인간은 피부색,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5	4	3	2	1

dCollection @ chosun

2) 독서토론수업 후 결과 반응지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독서토론수업 후 토론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5	4	3	2	1
2	독서토론수업 후 토론 능력이 늘었다.	5	4	3	2	1
3	독서토론수업 후 다문화사회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5	4	3	2	1
4	독서토론수업이 재미있었다.	5	4	3	2	1
5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5	4	3	2	1
6	독서토론수업으로 독서활동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	5	4	3	2	1
7	독서토론수업 후 일상생활에서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한다.	5	4	3	2	1
8	독서토론수업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향상되었다.	5	4	3	2	1
9	독서토론수업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다.	5	4	3	2	1
10	독서토론수업으로 토론할 때에 나의 팀이 승리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고 싶어졌다.	5	4	3	2	1
	문항내용	구분기준				
11	독서토론수업 중 가장 잘 된 수업은 언제인가?	1차	2차	3차	4차	5차
12	독서토론수업으로 적절한 텍스트는 무엇인가?	기사문	설명문	보고문	소설	수필
13	독서토론수업에 적절한 토론방법은 무엇인가?	자유 토론		배심원 토론		
14	수업 중 독서토론수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절한가?	70%	50%	30%	15%	5%
15	독서토론수업을 얼마나 추천해주고 싶은가?	매우 추천	추천	약간 추천	추천 안함	비추천

dCollection @ chosun

2. 토론 전 활동 학습자료 (‘글의 내용 이해하기’ 활동)

1) 1차 토론 전 활동자료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

(　　)월 (　　)일　　2학년 (　　)과 (　　)번 이름 : (　　)	
내용 기억하기	1.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은?
	2.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중년층의 인식은?
	3.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나요?(복지, 임금포함)
	4.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로 간 시기는 언제였나요?
	5. 위에서 말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6.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기에 왜 독일로 갔을까요?
	7.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기에 독일에 가서 가졌던 직업은 무엇인가요?
논제에 대한 나의 생각	

dCollection @ chosun

2) 2차 토론 전 활동자료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

( )월 ( )일 2학년 식품가공과 ( )번 이름 : ( )		
내용 기억하기	1. 이주란 무엇인가요?	
	이주	
	자발적 이주	
	강제적 이주	
	2. 다문화주의란 무엇인가요?	
	3. 다문화가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4. 왜 한국사회로 다문화주의가 진입하게 되었을까요?	
	5.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 유형은 무엇인가요?	
	6. 최근 가장 많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출신국 두 나라는 어디인가요?	
	7. 미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1)	
	2)	
	3)	
	4)	
	8. 캐나다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무엇인가요?	
	9. 호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어떠한가요?	
논제에 대한 나의 생각		

dCollection @ chosun

3) 3차 토론 전 활동자료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

( )월 ( )일 2학년 식품가공과 ( )번 이름 : ( )	
소설을 읽고 난 느낌은?	
내용 기억하기	1. 주인공의 집의 환경은 어떠한가?(집에 대한 느낌)
	2. 알리와 비재아저씨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3. 나를 보는 학급 반 친구들의 시선은 어떠한가?
	4. 공장의 환경은 어떠한 곳인가?
	5. 쿤이 염색하고 브랜드 의류를 입는 이유?
	6. '나'가 하는 독특한 세수법은 무엇이며, 왜 하는가?
	7. 나의 국적과 학교 소속은?

dCollection @ chosun

내용 기억하기	8. 필용이 아저씨가 말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9. ‘나’는 아버지의 생일날 선물을 어떤 것을 준비했으며, 어떻게 준비하였는가?
	10. 네팔에서 아버지와 한국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다른가?
	11. ‘나’가 친구네 집으로 초대받은 이유?
	12. 노랭이의 최후는?

dCollection @ chosun

4) 4차 토론 전 활동자료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

( )월 ( )일 2학년 식품가공과 ( )번 이름 : ( )	
소설을 읽고 난 느낌은?	
내용 기억하기	1. 사이프러스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2. '나'가 카자흐스탄을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 편지에서 한국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 편지에서 사람들이 고향이나 민족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
	5. 1937년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의 대우나 삶은 어떠했는가?
	6. '류다'는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가?

dCollection @ chosun

내용 기억하기	7. 이식쿨 호수는 어떤 곳인가?
	8. ‘나’가 호텔에서 방까지 들어가는 동안 입을 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이식쿨 호수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이 대부분 문을 닫은 이유는 무엇인가?
	10.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남아있는 소련의 잔재는 무엇인가?
	11. ‘나’가 본 이식쿨 호수는 어떠했는가?
	12. ‘하얀 배’는 어떤 의미인가? (2가지)
	① ②
논제에 대한 나의 생각	

dCollection @ chosun

5) 5차 토론 전 활동자료

토론을 위한 학습자료

(　　)월 (　　)일　　2학년 식품가공과 (　　)번 이름 : (　　)	
내용 기억하기	1. 다니엘의 학교 생활은 어떠한가? (수업태도, 성적, 성격 등)
	2. 다니엘 부모의 국적과 태어난 곳, 언제 한국으로 왔는가?
	3. 다니엘이 다문화인으로서 겪은 상처는?
	4. 다니엘이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갈등을 겪는 이유?
	5. 대영이 남매의 부모의 국적은?
	6. 대영이, 문영이, 은영이가 각각 다문화인으로서 겪은 상처는?
	7. 이스마엘의 부모의 국적은?
	8. 이스마엘이 다문화인으로서 겪은 상처는?

dCollection @ chosun

내용 기억하기	9. 순혈주의는 무엇인가?	
	10.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순혈주의는?	
	11. 우리나라의 단일민족사관의 한계는? (새터민, 중국 동포(조선족), 구소련 지역동포(고려인)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	
	12. 다문화가정자녀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걸림돌은?	
	13. 다문화인들(중간입국자녀들 포함)의 진학률이 떨어지는 이유?	
	14.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선생님이 강조하는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법은?	
동화와 공존	**동화**	**공존**

dCollection @ chosun

3. 모둠별 토론 기록장

모둠별 토론 기록장

( )년 ( )월 ( )일

모둠이름	
모둠구성원	
토론 주제	
모둠원 이름	모둠원 생각
1.( )	
2.( )	
3.( )	
4.( )	
5.( )	
사회자 : 기록이 :	

dCollection @ chosun

4. 토론 평가서[36)]

토 론 평 가 서

	학년 반 이름 : /모둠이름 :										
논제											
토론자	찬성팀 :										
	반대팀 :										
사회자											
	평가기준	찬성팀					반대팀				
공통항목	언어적 태도(목소리, 속도, 말투 등)의 적절성	1	2	3	4	5	1	2	3	4	5
	토론의 예절과 규칙 준수 여부	1	2	3	4	5	1	2	3	4	5
입론	토론의 쟁점을 잘 포착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논거가 적절한가?	1	2	3	4	5	1	2	3	4	5
	논거가 타당한가?	1	2	3	4	5	1	2	3	4	5
확인질문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질문을 했나?	1	2	3	4	5	1	2	3	4	5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잘 짚었나?	1	2	3	4	5	1	2	3	4	5
반론	상대방의 논리적 허점을 잘 지적했나?	1	2	3	4	5	1	2	3	4	5
	반론의 논거는 타당한가?	1	2	3	4	5	1	2	3	4	5
	반론거리를 모두 지적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최종발언	토론의 핵심 쟁점을 잘 정리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자기 팀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합계										
사회자	논제의 의의를 잘 부각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토론의 규칙과 시간을 잘 지키도록 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토론의 내용을 잘 요약했는가?	1	2	3	4	5	1	2	3	4	5
	합계										
총평											

36) 이정옥, 「토론의 전략」, ㈜문학과 지성사, 2008, p159

dCollection @ chosun

5. 교수 · 학습 과정안

1) 1차 교수 · 학습 과정안

대상	2학년 1반	수업모형	모둠별학습
사용텍스트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막연한 반감 경계해야 (한겨레, 2012.4.15) 2. 다문화사회 담론의 '함정'(김영명칼럼, 2011.3.7)		
단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학 습 목 표	1.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다. 2.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습요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인사 및 출석을 점검한다.	· 함께 인사한다. ·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한다.	
	학습동기 유발	·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 관련 사진을 제시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생각을 5글자로 대답하게 한다.	· 사진을 보고 드는 생각을 5글자로 자유롭게 대답한다.	PPT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는다.	PPT자료
전개	토론 전 활동1 (영상보며 내용 채우기)	· 이주노동자에 관한 두 가지 동영상을 연속해서 시청하게 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인식' - '독일 경상도 사람들' ·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습지를 배부하여 동영상 관련 질문의 답변을 채우도록 한다.	· 영상을 보며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학습지 PPT자료
	확인학습	· 각자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한다.	· 교사의 질문에 모둠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dCollection @ chosun

	토론 전 활동2 (사설읽기)	·개별로 사설 2부씩 주고, 사설을 읽도록 한다. 읽을 때, 사설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주어진 사설을 읽고, 학습지에 사설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쓴다.	사설2부 학습지
	확인학습	·사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부연 설명한다.	·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전개	토론 활동1 (토론논제 제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토론 주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PPT자료 토론학습지
	토론 활동2 (모둠 토론)	·모둠 내 사회자를 정하여 모둠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기록자를 정하여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한다.	토론학습지
	토론 활동3 (공동 토론-자유 토론)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사가 토론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 규칙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화한다.	·모둠별로 모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 교사의 유의사항을 유념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후 활동1 (토론평가)	·토론의 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였는지 다 같이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한 내용을 반성하여 평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표한다.	PPT자료 토론평가서
	토론 후 활동2 (한줄 요약하기)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선을 각자 한 줄로 요약하게 한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여 한 줄로 요약한다.	학습지

dCollection @ chosun

정착	정리하기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	PPT자료
	차시예고	·차시를 안내한다.	·차시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PPT자료

dCollection @ chosun

2) 2차 교수 · 학습 과정안

대상	2학년 1반	수업모형	모둠별학습
사용텍스트	글로벌시대의 다문화교육(원진숙 외, 사회평론, 2010, pp16-84)		
단원	다문화 관련 개념		
학 습 목 표	1. 다문화 관련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다른 나라의 다문화주의정책을 설명할 수 있다. 3.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학습단계	학 습 요 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인사 및 출석을 점검한다.	· 함께 인사한다. ·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한다.	
	학습동기 유발	· 노르웨이 살인사건에 관한 영상을 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다.	· 사건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한다.	PPT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는다.	PPT자료
전개	토론 전 활동1 (글의 내용 이해하기)	· 지문을 제시하여 글을 읽게 하고, 학습지를 배부하여 내용의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	·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텍스트 학습지 PPT자료
	확인학습	· 각자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한다. 모둠별로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한다.	· 교사의 질문에 모둠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토론 전 활동2 (퍼즐 맞추기)	· 읽은 텍스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퍼즐을 제시하여 풀게 한다. 퍼즐을 먼저 맞춘 모둠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	· 교사가 제시한 퍼즐을 모둠별로 푼다.	퍼즐 학습지
	확인학습	· 모둠별로 답한 내용을 확인한 뒤 퍼즐을 풀면서 정답을 설명한다.	· 모둠별로 퍼즐의 정답을 발표하고, 교사의 정답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퍼즐 학습지

dCollection @ chosun

	토론활동1 (토론논제 제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지는 것이 좋겠는가?	·토론 주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PPT자료 토론학습지
	토론활동2 (모둠 토론)	·모둠 내 사회자를 정하여 모둠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기록자를 정하여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한다.	토론학습지
	토론활동3 (공동 토론- 자유 토론)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사가 토론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 규칙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화한다.	·모둠별로 모아진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한다. 교사의 유의사항을 유념하며 토론을 진행한다.	PPT자료
	토론 후 활동1 (토론 평가)	·토론의 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였는지 다 같이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한 내용을 반성하여 평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표한다.	PPT자료 토론평가서
	토론 후 활동2 (다문화 정책 만들기)	·오늘 토론 전 활동 및 토론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각 정부부처가 되어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도록 한다. - 정부부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부	·모둠별로 정부부처가 되어 다문화를 위한 정책을 만든다. 토론내용과 정책관이 되어봄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내면화하고 표현한다.	정책만들기 학습지 PPT자료
	발표하기	·모둠별로 만든 정책을 발표하게 하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다.	·모둠별로 발표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는다.	

dCollection @ chosun

정착	정리하기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	ＰＰＴ자료
	차시예고	·차시를 안내한다.	·차시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ＰＰＴ자료

dCollection @ chosun

3) 3차 교수 · 학습 과정안

대상	2학년 1반	수업모형	모둠별학습
사용텍스트	다문화소설 <코끼리>		
단원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삶		
학 습 목 표	1. 소설을 읽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2. 네팔,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3.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 습 요 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인사 및 출석을 점검한다.	· 함께 인사한다. ·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한다.	
	전시학습 확인	· 김재영의 소설 <코끼리>를 읽었는지 내용을 확인한다.	· 전 시간에 읽었던 소설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한다.	
	학습동기 유발	· 이주노동자 관련 사진(숙소, 공장, 일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진을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PPT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는다.	PPT자료
전개	토론 전 활동 1 (감상표현하기)	· 읽었던 소설의 감상을 간단히 적게 하고 감상내용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게 한다. 표현이 끝나면 발표하도록 한다. · 발표한 내용의 공통점을 찾아 부연 설명한다.	· 감상을 적고 이모티콘을 그린 뒤 자유롭게 발표한다. ·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내 감상과 비교하며 인지한다.	학습지
	토론 전 활동 2 (글의 내용 이해하기)	· 미리 제시한 소설을 전 시간에 읽게 하고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한 학습지를 배부하여 내용의 빈 칸을 채우도록 한다.	·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학습지 PPT자료

dCollection @ chosun

	확인학습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한다. 모둠별로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한다.	·교사의 질문에 모둠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토론 전 활동 3 (배경지식 쌓기)	·네팔이라는 국가에 대해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네팔의 산업 및 경제를 설명하면서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이유를 설명한다.	·교사가 제시한 사진 자료 및 설명을 듣고 소설의 배경인 네팔의 산업, 경제 및 네팔인들이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본다.	PPT자료
	토론활동1 (토론논제 제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 미국인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이 다르다. 우리의 태도가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	·토론 주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PPT자료 학습자료
	토론활동2 (모둠 토론)	·모둠 내 사회자를 정하여 조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기록자를 정하여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한다.	PPT자료
	토론활동3 (논제 제시-배심원 토론)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조원 중 한명씩 나와 찬성팀(3명)과 반대팀(3명)을 구성한다. 찬성과 반대팀은 사회자(교사)의 진행에 따라 토론을 한다. 교사가 토론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 규칙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음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토론을 지켜본다. ·배심원들의 토론 전 후로 찬	·찬성팀과 반대팀은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합하여 토론을 한다. 교사의 유의사항을 유념하며 토론을 한다. ·배심원학생들은 토론을 지켜보며 토론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반박하거나 질문한다.	

dCollection @ chosun

		성과 반대 지지수를 파악하여 양팀의 승패를 판정한다.		
	토론 후 활동1 (토론평가)	·토론의 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였는지 다 같이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한 내용을 반성하여 평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표한다.	PPT자료 토론평가서
	토론 후 활동2 (편지쓰기)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위로나 격려의 편지를 써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생각과 소설의 내용을 내면화한다.	ＰＰＴ자료
정착	정리하기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	PPT자료
	차시예고	·차시를 안내한다.	·차시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PPT자료

dCollection @ chosun

4) 4차 교수 · 학습 과정안

대상	2학년 1반	수업모형	모둠별학습
사용텍스트	소설 <하얀 배>		
단원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삶		
학 습 목 표	1. 소설을 읽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2. 강제 이주된 고려인의 생활을 알 수 있다. 3.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 습 요 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인사 및 출석을 점검한다.	· 함께 인사한다. ·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한다.	
	전시학습 확인	· 윤후명의 소설 <하얀배>를 읽었는지 내용을 확인한다. 대략적인 내용을 질문한다.	· 전 시간에 읽었던 소설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한다.	
	학습동기 유발	· 고려인에 관한 뉴스동영상을 보고 왜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는지 생각해본다.	· 영상을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설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PPT자료 영상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는다.	PPT자료
전개	토론 전 활동1 (감상 표현하기)	· 읽었던 소설의 감상을 간단히 적게 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발표한 내용의 공통점을 찾아 부연 설명한다.	· 감상을 적은 뒤 자유롭게 발표한다. ·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인지한다.	학습지
	토론 전 활동2 (글의 내용 이해하기)	· 미리 제시한 소설을 전 시간에 읽게 하고 지문을 제시하여 글을 읽게 하고, 학습지를 배부하여 내용의 빈 칸을 채우도록 한다.	·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학습지 PPT자료
	확인학습	·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한다. 조별로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한다.	· 교사의 질문에 조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dCollection @ chosun

	토론 전 활동3 (소설의 흐름파악)	·지도를 제시하고, 작품 속 여행경로에 따라 서술자의 심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둠별로 찾고 학습지에 표시하게 한다. ·모둠별 활동이 끝나면 교사의 부연설명과 함께 다 같이 소설의 여행경로를 되짚어 본다.	·학습자료에 제시된 지도를 보고, 소설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여행경로에 따라 서술자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찾아 학습지에 적는다. ·교사의 설명과 모둠에서 찾은 심리와 비교하며 여행경로를 되짚어 본다.	PPT자료 학습지
	토론 전 활동4 (배경지식 키우기)	·소설의 제재 중 하나인 '사이프러스나무'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질문한다.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한다. *(고흐 그림 제시)*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 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PPT자료
		·고려인들이 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중앙아시아의 지도를 보여주며 소설의 배경이 된 나라 및 도시를 소개한다.	·그림을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소설의 배경지식을 이해한다.	
		·'이식쿨호수'에 대해 소개하면서 '하얀배'가 어떤 의미인지 질문한다. 대답을 듣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한다.	·교사의 질문에 대답한 뒤,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토론활동1 (토론논제 제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 소련이 사회 통합을 위해 고려인에게 펼친 언어교육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토론 주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PPT자료 학습지
	토론활동2 (모둠 토론)	·모둠 내 사회자를 정하여 모둠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기록자를 정하여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한다.	학습지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찬성팀과 반대팀은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dCollection @ chosun

	토론활동3 (공동 토론-배심원 토론)	하도록 한다. 조원 중 한명씩 나와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한다. 찬성과 반대팀은 사회자(교사)의 진행에 따라 토론을 한다. 교사가 토론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려주어 토론 규칙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 내용은 기록하거나 녹음한다.	의견을 조합하여 토론을 한다. 교사의 유의사항을 유념하며 토론을 한다.	
		·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토론을 지켜본다. · 배심원들의 토론 전 후로 찬성과 반대 지지수를 파악하여 양팀의 승패를 판정한다.	· 배심원학생들은 토론을 지켜보며 토론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반박하거나 질문한다.	
	토론 후 활동1 (토론평가)	· 토론평가서를 제시하고 토론의 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였는지 다 같이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 토론한 내용을 반성하여 평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표한다.	PPT자료 학습지
	토론 후 활동2 (비평 글쓰기)	· 토론한 내용 및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서의 고려인과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삶이나 대우를 비교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	· 이전 시간에 토의했던 주제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와 고려인의 삶을 비교하는 글을 쓴다.	학습지
정착	정리하기	·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 교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	PPT자료
	차시예고	· 차시를 안내한다.	· 차시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PPT자료

dCollection @ chosun

5) 5차 교수 · 학습 과정안

대상		2학년 1반	수업모형	모둠별학습
단원		다문화와 공존		
학 습 목 표		1. 글을 읽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2. 동화와 공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토론 주제에 대해 근거를 들어 토론할 수 있다.		
학습 단계	학 습 요 소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활동	학생 활동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 인사 및 출석을 점검한다.	· 함께 인사한다. · 이름을 부르면 큰소리로 대답한다.	
	전시학습 확인	· 미리 주어진 텍스트를 읽었는지 내용을 확인한다. 대략적인 내용을 질문한다.	· 전 시간에 읽었던 텍스트의 내용을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한다.	
	학습동기 유발	· 텍스트와 관련된 다문화가정의 영상을 보여준다.	· 영상을 보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다문화주의 삶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PPT자료 영상자료
	학습목표 제시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학습목표를 소리 내어 읽는다.	PPT자료
전개	토론 전 활동1 (글의 내용 이해하기)	· 학습지에 제시된 지문을 통해 텍스트를 다시 읽게 하고, 학습지 빈 칸에 내용을 채우도록 한다.	· 주어진 지문을 읽고 학습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적는다.	학습자료 PPT자료
	확인학습	· 질문에 대한 답을 질문한다. 모둠별로 질문을 하여 내용을 확인한 뒤 부연 설명을 한다.	· 교사의 질문에 조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토론 전 활동2 (배경지식 키우기)	· 동화와 공존의 차이를 질문한다. · 교사의 질문에 조별로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 교사의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PPT자료 학습지

dCollection @ chosun

		-동화와 공존의 차이 동화 : 용광로정책 (중국) 공존 : 샐러드볼정책(미국)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문화 동화와 공존 사건들을 예를 들어 보여준다. - 다문화 역사적 사건제시 김수로왕과 인도공주의 혼인 백제의 인도문화 적극 수용 고구려의 다양한 부족통합	·교사의 설명을 듣고 이해한다.	
		·설명이 끝나면 학습지에 동화와 공존이 어떻게 다른지 각자 적도록 한다.	·동화와 공존의 차이를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적는다.	
	토론활동1 (토론논제 제시)	·토론 논제를 제시하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적도록 한다. -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한국사회에 동화시킬 것인가, 모국어를 한국어와 같은 비중으로 가르칠 것인가?	·토론 주제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는다.	PPT자료
	토론활동2 (모둠 토론)	·모둠 내 사회자를 정하여 조별로 토론하도록 한다. ·기록자를 정하여 모둠 내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다.	·모둠별로 토론하고 의견을 정리한다.	
	토론활동3 (공동토론 -배심원 토론)	·모둠에서 토론된 내용을 사회자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한다. 조원 중 한명씩 나와 찬성팀과 반대팀을 구성한다. 찬성과 반대팀은 사회자(교사)의 진행에 따라 토론을 한다. 교사가 토론 시 유의사항을	·찬성팀과 반대팀은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조합하여 토론을 한다. 교사의 유의사항을 유념하며 토론을 한다.	

dCollection @ chosun

		미리 알려주어 토론 규칙을 지켜가며 할 수 있도록 한다. ·토론 내용은 기록 또는 녹음한다.		
		·나머지 학생들은 배심원이 되어 토론을 지켜본다. ·배심원들에게 토론 전 후로 찬성과 반대 지지수를 파악하여 양 팀의 승패를 판정한다.	·배심원학생들은 토론을 지켜보며 토론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반박하거나 질문한다.	
	토론 후 활동1 (토론 평가)	·토론평가서를 제시하고 토론의 규칙에 맞게 토론을 하였는지 다 같이 평가한다. 평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한 내용을 반성하여 평가하여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유롭게 발표한다.	PPT자료 학습자료
	토론 후 활동2 (한국인 조건 찾기)	·토론이 끝난 뒤 모둠별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적게 한다. ·작성이 끝나면 모둠별로 발표를 하게 하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한국인의 조건을 적는다. 완성이 되면 모둠별로 발표하고 교사의 부연설명을 듣는다.	학습자료
정착	정리하기	·각 모둠에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교사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토론 내용을 이해한다.	PPT자료
	차시예고	·차시를 안내한다.	·차시내용을 주의 깊게 듣는다.	PPT자료

dCollection @ chosun